

2026 임시주주총회 설명자료

Korea Zinc Co., Ltd.

Contents

- ① 202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안건
- ② 검증된 경영성과 및 지속적인 주주환원
- ③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 ④ MBK·영풍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 ⑤ Appendix

Disclaimer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작성된 것이며,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성도에 대하여 어떠한 직·간접적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언제든지 본 자료를 수정 또는 교체할 권리가 있으며,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그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01

202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안건

구분	Agenda	결의 방법	추천인	이사회 의견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특별 결의	고려아연(주)	찬성
제2호. 집중투표* 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유미개발 / MBK·영풍·YPC	
제2-1호	독립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보통 결의	고려아연(주)	찬성
제2-2호	독립이사 서은숙 선임의 건	보통 결의	고려아연(주)	찬성
제2-3호	독립이사 이준봉 선임의 건	보통 결의	MBK·영풍·YPC	-
제2-4호	독립이사 심혜섭 선임의 건	보통 결의	MBK·영풍·YPC	-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제3-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 즉, 제3-1호 안건과 제3-2호 안건은 별개의 안건이므로 각 안건에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백인규 선임의 건	보통 결의 (합산 3%률)	고려아연(주)	찬성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박유경 선임의 건	보통 결의 (합산 3%률)	MBK·영풍·YPC	-

※ 집중투표: 이번 임시주총 이사 4인 선임 안건에서는 이사 선임 인원(4인)수만큼 의결권이 부여되어,
보유주식 수의 4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하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02

검증된 경영성과

- 고려아연은 지난 52년간 축적한 제련 기술과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기업으로 성장
 - **고도화된 금속 회수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 제련 사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
- 분기 실적 공시가 의무화된 이후 106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44년 연속 연간 영업이익 흑자, 38년 연속 노사 무분규 달성
 - 원료 수급, 금속가격 변동, 경기 사이클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축적된 **생산·운영 역량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 구축
- 2025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16조6천억원, 영업이익 1조2,3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 **2026년 상반기에도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1조3,300억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및 총주주수익률 (TSR) 등 주요 지표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지속 달성
 - 특히 **현 경영진 출범 이후 견조한 외형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가속화**되며, 2019년 이후 **업계 최고 수준의 TSR 193% 및 매출 CAGR 16.3%** 달성
- 당사의 환경·안전, 공급망 책임,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체계가 국제적 평가 기준에 부합
 - **ISS ESG 평가 전 부문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비철금속 기업 최초로 Dow Jones Best-in-Class Indices에 편입**

03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거버넌스 개선]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및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한 선진 지배구조 확립

-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 분리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 BSM (Board Skills Matrix) 기반 이사 선임 및 외국인·여성 독립이사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 주주참여 확대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선진화
 - 상법 개정 시행 ('26.9.10)에 앞서 집중투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시행, 소수주주의 이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주주추천 공모제도 도입, 후보 심사 기준·절차 공개를 통해 투명성·공정성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이사회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고도화
 - 외부 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한 개선과제를 이사회 운영계획에 반영, 운영 효율성·투명성 강화
- 내부통제 및 책임경영 체계 강화
 - 주요 전략·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경영위원회 신설, 잠재 리스크 사전 관리체계 강화
 - 재무성과와 중장기 기업가치 창출을 연계한 임원 성과보상 체계 구축,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관계 일치 강화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 항목 준수
 - '25년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100% 준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지표 공개

[주주환원]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 배당 예측 가능성 및 주주환원 정책의 안정성 강화
 - 배당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5년 결산 배당을 기준일 대비 사전 확정 및 공시
 - 연결 기준 총주주환원을 40% 이상 목표를 지속초과 달성 및 분기배당 도입·실시
- 자기주식의 단계적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 공개매수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주) 전량 '25년 소각 완료
 - 기존 보유 중인 자기주식 246,665주 소각 예정 ('26년 2월)
- 액면분할 통한 주식 유동성 및 주주가치 제고 추진 예정
 - '25년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제안으로 가결되었으나, MBK·영풍 소송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액면분할 안건은 재추진 예정

[주주소통]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및 C-Level 중심의 소통 강화를 통해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

-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 밸류업 계획 이행 현황 공시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 대상 성장전략 및 주주가치 제고 방향 공유
- C-Level 및 독립이사 중심의 투자자 소통 확대 * C-Level 미팅 횟수 : ('24년) 54건 → ('25년) 81건 → (1H26) 44건

01.

202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안건

202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안건

- 이번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핵심 목적은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한 '정관 변경(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이며, 이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MBK·YP 반대로 부결되었던 정관개정안을 재상정하여,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기 위함임
- 아울러 지난 5월 사임한 독립이사 4인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함께 상정함

구분	안건명	결의 방법	추천인	이사회 의견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특별 결의	고려아연(주)	찬성
제2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유미개발 / MBK·영풍·YPC		
제2-1호	독립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보통 결의 (집중 투표)	고려아연(주)	찬성
제2-2호	독립이사 서은숙 선임의 건	보통 결의 (집중 투표)	고려아연(주)	찬성
제2-3호	독립이사 이준봉 선임의 건	보통 결의 (집중 투표)	MBK·영풍·YPC	-
제2-4호	독립이사 심혜섭 선임의 건	보통 결의 (집중 투표)	MBK·영풍·YPC	-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¹⁾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백인규 선임의 건	보통 결의 (합산 3%를)	고려아연(주)	찬성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박유경 선임의 건	보통 결의 (합산 3%를)	MBK·영풍·YPC	-

1) '제3-1호', '제3-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 (즉, 제3-1호 안건과 제3-2호 안건은 별개의 안건이므로 각 안건에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26년 정기주총에서 개정 상법 이행을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MBK·영풍의 반대로 부결**
- 올해 3월 정관 변경을 추진한 124개사 중 고려아연만 유일하게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법정 기한(9/10일) 내 가결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 불가피
- MBK·영풍은 안건 공개 전(주총 소집결의),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 변경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별도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등 모순적 행태를 보임

임시 주주총회 안건

개정 상법

- 감사위원회 위원 중 2인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분리선임 인원 상향 (1인 → 2인)
- '26년 9월 9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 안건이 승인되는 즉시 시행

찬성 근거

- 개정 상법(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로서 2026년 9월 10일까지 최소 2명 이상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보 필요
- 미이행 시 법정 감사위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상태가 발생하며,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리스크 발생

'26.3월 정기주주총회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관 변경 부결

'26년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진행한 124개사 중 고려아연을 제외한 123개사(99.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정관 변경 안건 가결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 2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추가 법령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시장에서는 개정 상법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정관 정비 사항으로 인식

→ 동일 취지 안건은 영풍 자사 주총에서도 97.8% 찬성으로 가결

MBK·영풍 측 반대 논리 일관성 결여

'26년 2월 주주제안

MBK·영풍은 특정 후보가 추천되기 전부터,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선제적으로 반대

[당시 주주제안 원문 발췌]

"제안주주들은 본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며, 해당 정관개정안과 그 개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금년 9월 이전에 직무집행정지 중인 이사 중 1인을 사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하면 족하다는 입장..(중략)"

제2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 당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이형규·서은숙 독립이사 후보는 **금융·산업 전문성과 독립적 감독 역량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이형규 후보는 법률·지배구조 측면에서, 서은숙 후보는 재무전략·자본배분 측면에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안건 번호	직위	후보자	추천인	주요 경력	선임 기대효과
제2-1호	독립이사	 이형규 (1955.10.)	고려아연(주)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現)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위원 • 現) 인천도시가스 사외이사 • 前) 한양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한국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 등 • 前)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형규 후보 추천을 통해 법률 및 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사업에 필요한 국제적 규제 대응력을 제고 • 법률 및 지배구조 관점에서 전략·투자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점검 -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및 교수로서 축적한 법률 전문성을 보유 •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인권·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준법 체계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경험 보유 •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공시, 이사회 운영 및 주주권 보호에 대한 실무적 이해 -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경력 보유
제2-2호	독립이사	 서은숙 (1968.04.)	고려아연(주)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現)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現) NH투자증권 독립이사 • 現) 국방부 군인복지 군인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 現) 부산항만공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前) NH농협금융지주 독립이사 • 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소비자보호 분과위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서은숙 후보가 경제·금융 전문성과 금융회사 이사회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재무 및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권익 보호 관점의 이사회 감독 기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경제·금융 및 투자자 보호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 -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 경험 보유 • 재무전략, 자본배분, 투자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전문적 감독 역량 - 경제·금융학 연구 및 교육 경력 보유, 증권사/금융지주 독립이사로 활동 • NH투자증권 독립이사 경험으로 스톱어드십 및 주주권익 보호 경험 풍부 - NH투자증권 및 NH농협금융지주 독립이사 경험 보유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는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이사회 및 Senior Advisor를 역임한 회계·감사 전문가로, 감사위원회가 요구하는 회계·감사 전문성 보유
- 실무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감독 및 내부통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감사위원 후보 백인규

(1968.02.)

경력 사항

- 現) 세진회계법인 회계/재무 자문 (2026.04~)
現) 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산학협력 교수 (2025.03~)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며, 28년간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로 재직
 - 회계감사본부, M&A 재무자문본부 (1996.11 ~ 2020.06)
 -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전문위원 (2024.05 ~ 2026.03)
- Deloitte 그룹 ESG 센터장 역임 - ESG 경영전략/거버넌스 자문 경험, 이해관계자 소통 역량 보유
 - 한국 Deloitte그룹 ESG센터장 (2021.03 ~ 2026.03) 및 사단법인 Deloitte 한마음나눔 이사장

독립성 검토

- Deloitte 안진과 고려아연 간 최근 3년 내 용역 제공 여부 등 독립성 이슈 없음
-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정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 충족

이사역임 경력

- 한국 Deloitte 그룹 이사회 의장 (2020.06 ~ 2024.05)
 - Deloitte Asia Pacific Board Member 및 ESG Committee Chair

감사위원 역량 및 요건

- ✓ 1. 30년 간 회계감사 경력 보유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감사 역량 보유
- ✓ 2. ESG 및 M&A 자문 경력 보유
글로벌 M&A 자문 및 투자 실사 경험 다수
- ✓ 3. 상법상 결격사유 없음 / 전문성 요건 충족
독립이사/감사위원 결격사유 없음, 회계 전문가 요건 충족
- ✓ 4. 글로벌 역량
영어 능통, 미국 파견근무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 ✓ 5. 풍부한 이사회 및 거버넌스 경험
Deloitte 그룹 이사회 의장 및 Deloitte Asia Board Member

[별첨] 신규 이사 후보를 반영한 BSM

- BSM(Board Skills Matrix)에 기반하여 Financial/M&A, Audit, Legal 및 ESG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이사 4인과 감사위원 후보 선임 예정
- 당사는 이사회 다양성을 중요하게 고려, 이형규·서은숙 독립이사 후보자는 금융, M&A, 정부·공공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에 기여

Board Skills Matrix(BSM)

Board Skills Matrix(BSM)											← 임시주총 이사회 후보 →											
	사내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후보				감사위원 후보		기타 비상무이사					
Skills/Background	최윤범	박기덕	황덕남	김보영	권순범	서대원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이선숙	이형규	서은숙	이준봉	심혜섭	백인규	박유경	Walter F. McLallen	최연석	강성두	김광일	전문성 비중	
Leadership	●	●	●																●	●	26%	
Financial/M&A		●					●		●			●			●	●	●	●		●	42%	전문성 강화
Operations	●	●																			11%	
Risk								●				●			●						16%	전문성 강화
Audit						●		●							●		●				21%	전문성 강화
International	●	●		●			●				●					●	●	●			37%	전문성 강화
Industry/Tech	●	●																	●		16%	
Strategic Planning	●	●					●														16%	
Public Affairs			●		●	●	●	●			●	●									37%	전문성 강화
Legal	●		●		●					●	●		●	●						●	42%	
ESG				●					●						●	●					16%	

[별첨] MBK·영풍·YPC 독립이사 후보

안건번호	직위	후보자	추천인	주요 경력	검토 필요 사항
제2-3호	독립이사	이준봉 (1963.02.)	MBK·영풍·YPC	•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한국세법학회 회장, 前)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前) STX조선해양 사외이사('08.3.~'12.3.)	• 이준봉 후보는 2008~2012년 STX조선해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 기간 중 STX조선해양에서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 회계부정이 발생했으며, 관련 주주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음 • 감사/회계 전문성과 감사위원 경험을 핵심 자격으로 강조하는 만큼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
제2-4호	독립이사	심혜섭 (1979.07.)	MBK·영풍·YPC	• 現) 심혜섭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백금T&A 사외이사('26. 3.~) • 現)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요회원 및 前 등기이사 ('24~'26) • 前)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담우 변호사 • 前) 남양유업 감사('23~'26. 3.)	• 후보자의 핵심 역량으로 '주주행동주의' 및 '소수주주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정 주주 또는 특정 관점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제3-2호	독립이사 감사위원	박유경 (1969.03.)	MBK·영풍·YPC	• 現) Tara Climate Foundation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現)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문위원 • 前) APG Asset Management Managing Director('09~'25) - Head of EME(Emerging Markets Equities) 신흥국 주식운용 총괄 - Head of APAC Responsible Investment & Governance 아태 지역 책임 투자 및 거버넌스 총괄 • 前) Good Morning 증권/Citi/ING Baring 증권 애널리스트 - 전력·가스 유틸리티, 소비재, 철강, 화학, 정유 등 기업분석 • 前) 국민연금공단 ESG위원회 위원('23~'25) • 前) 한국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 위원	• MBK·영풍·YPC가 추천한 박유경 후보는 '25년까지 APG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APG는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 • 주요 연금금의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또는 ② '법률·경영자문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박유경 후보는 '23~'25년 국민연금공단 ESG위원회 위원 역임 등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한 점검 필요 • 당사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 기준인 BSM Audit/재무 역량 미충족 내/외부 감사 관련 업무 경력 10년 이상 / 공인회계사, 감사위원 또는 이를 준하는 관련 업무 10년 근무한 경력, 회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회계 관련 경영진 이상의 직 수행 5년 등

[별첨]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이사회 입장 표명

- 7/21 임시이사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개정 상법 요건 충족과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6년 9월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결의 완료
- 고려아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이형규, 서은숙 및 백인규 후보에 대해 찬성 권고

이사회 입장 요약

#	임시주총 안건	이사회 권고	기대효과
1호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찬성	개정 상법(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로서 '26년 9월 10일까지 최소 2명 이상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충족
2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찬성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친 독립이사 후보 이형규와 서은숙 추천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
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찬성	법령 준수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추가 선임을 위한 안정적인 이사회 구조를 마련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백인규를 추천

이사회 입장문 (전문)

당사는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 시도라는 위기 속에서도 106분기 연속 흑자라는 압도적인 경영 실적으로 본업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증명하였고, 이에 더해 미국 통합제련소 구축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개정 상법(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로서 2026년 9월 10일까지 최소 2명 이상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상 요건을 차질 없이 준수하고자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1호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 준수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추가 선임을 위한 안정적인 이사회 구조를 마련하고자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제2호 의안)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제3호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주주제안으로 제출된 독립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독립이사 후보 선임 안건도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당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로 독립이사 후보 이형규, 서은숙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백인규를 추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들은 뛰어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신사업 및 주주환원 정책을 뒷받침할 최적의 인재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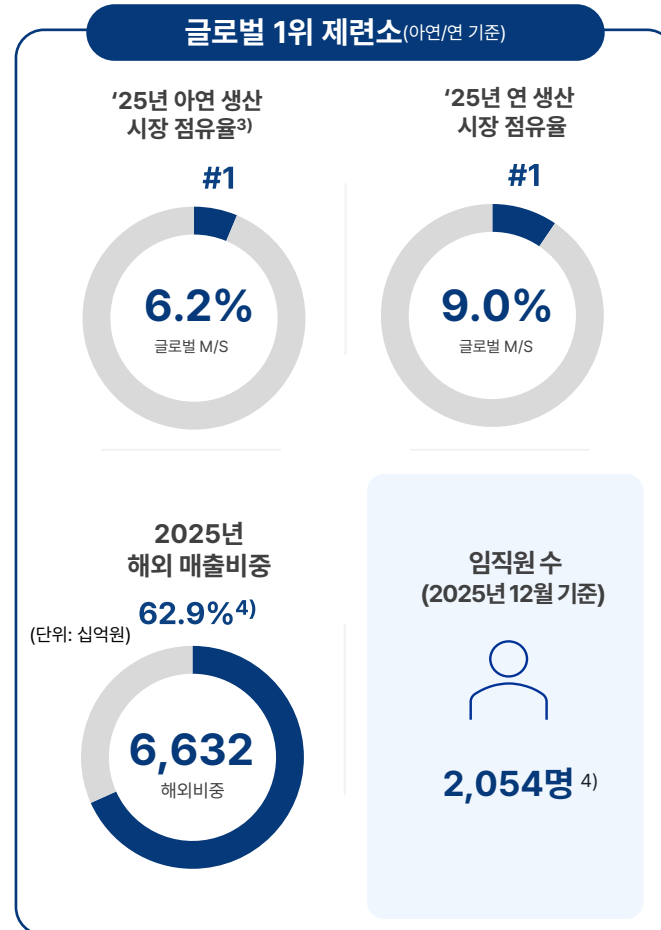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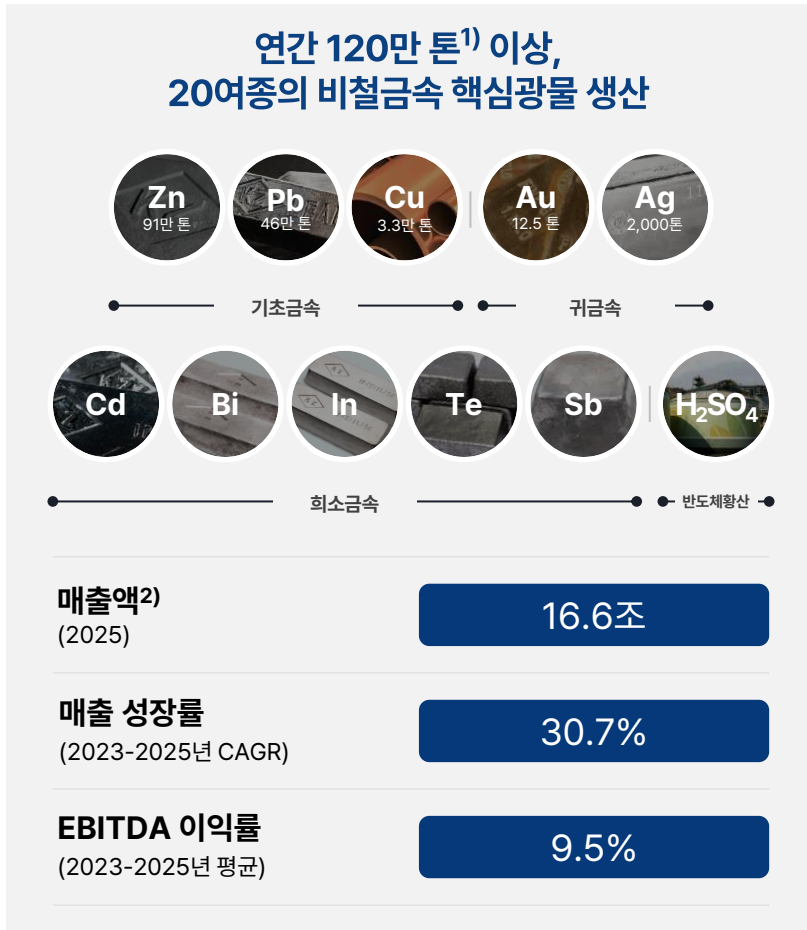
당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넓히고 장기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사 이사회가 본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1호 의안), 독립이사 이형규 및 서은숙 선임의 건(제2-1호 및 제2-2호 의안),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백인규 선임의 건(제3-1호 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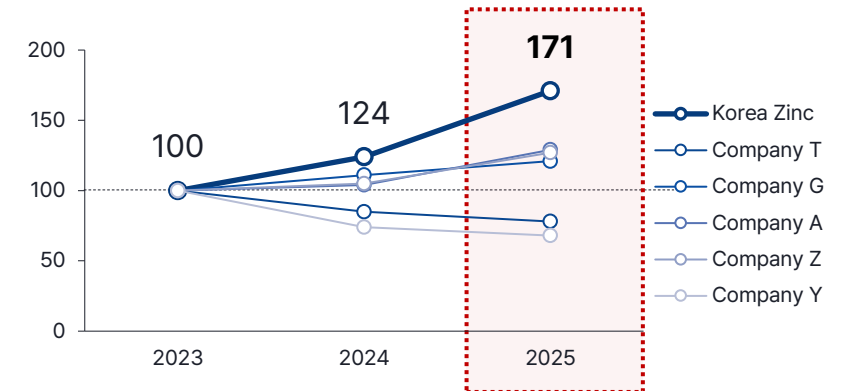
검증된 경영성과 및 지속적인 주주환원

1. 고려아연의 경영 성과 _ Global Peer를 상회하는 경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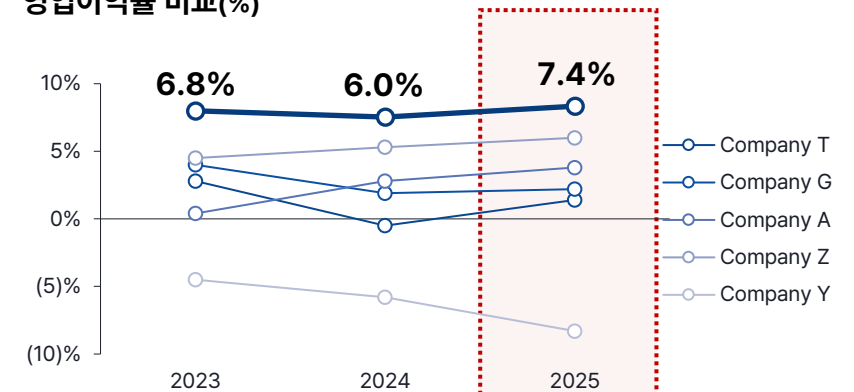
- 고려아연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엄격한 환경 책임 기준**을 준수하며 20여종의 비철금속과 핵심광물을 연간 120만 톤 이상 생산
- 압도적·차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44년, 106분기 연속 영업흑자 기록(2000년 분기 공시 의무화 이후), 38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



매출성장을 비교(indexed=2023)



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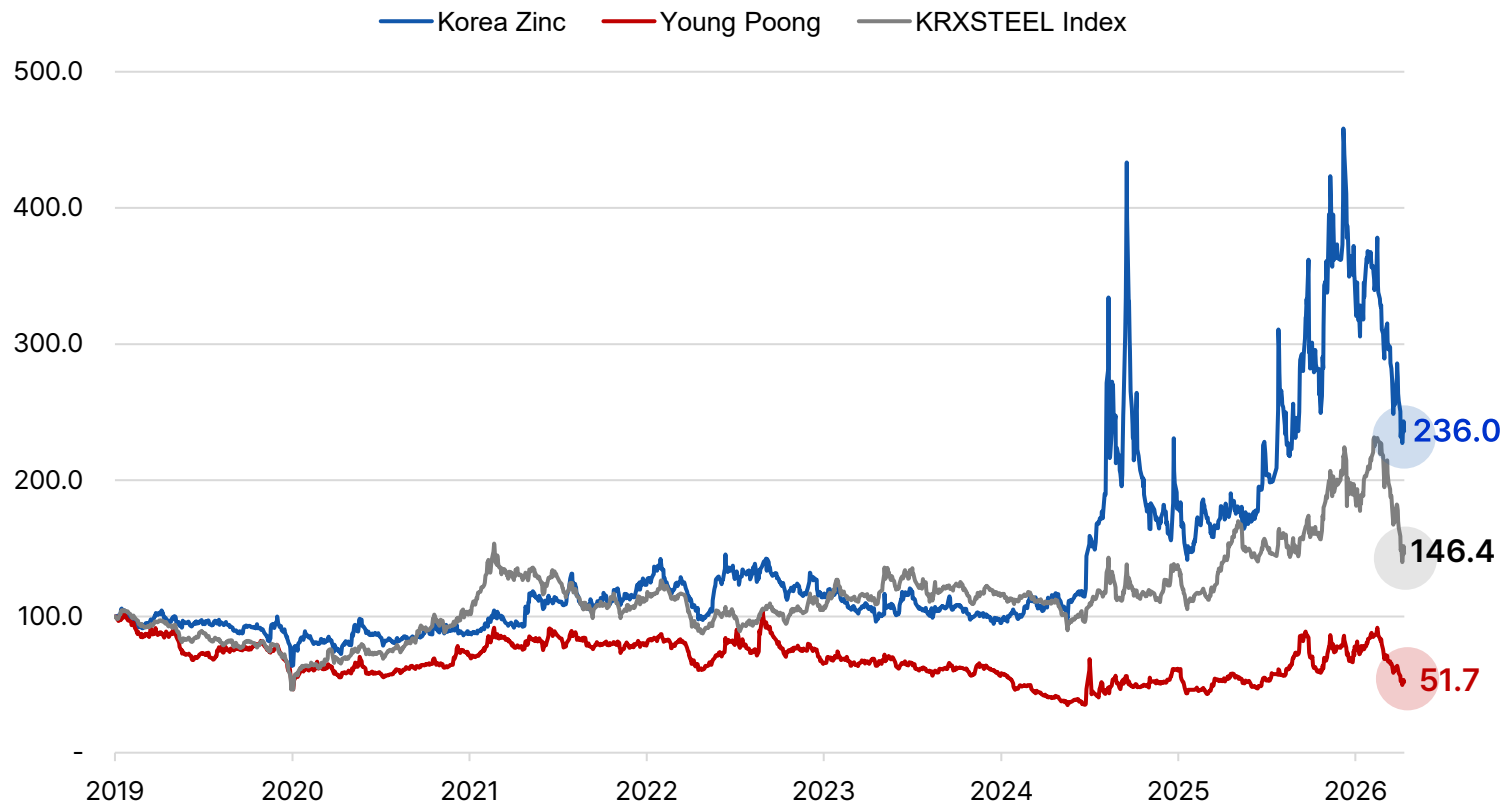


1) SMC 제련소 포함
 2) 고려아연 연결기준
 3) SMC 제련소 포함, Global Zinc Production Ranking, Wood Mackenzie, 2025
 4) 고려아연 별도 기준(연결 자회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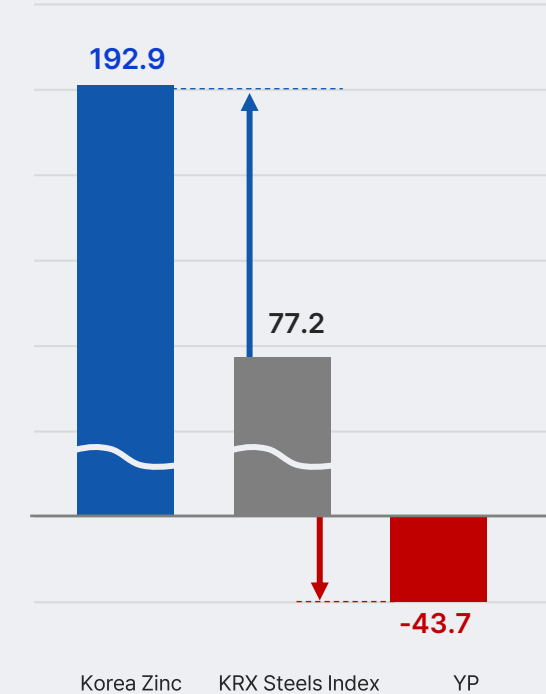
2. 고려아연의 경영 성과 _ 주가 추이 및 TSR

- '19년 최윤범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고려아연의 **주식 가격 및 총주주수익률(TSR)**은 국내 Peer 및 업계 Index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주식 가격* (2019.03.22-2026.06.30) (Indexed=2019)



총주주수익률(TSR)* (% , 2019.03.22-2026.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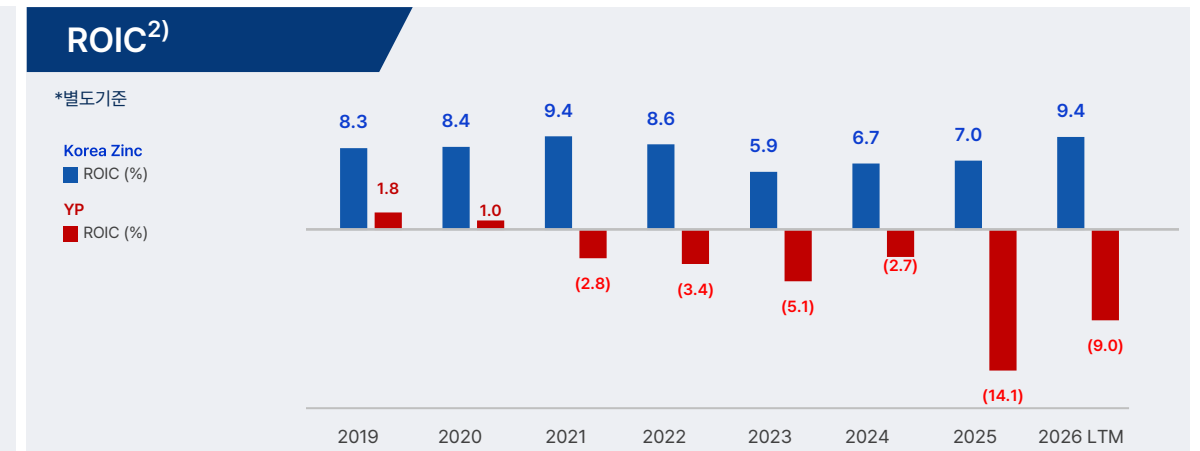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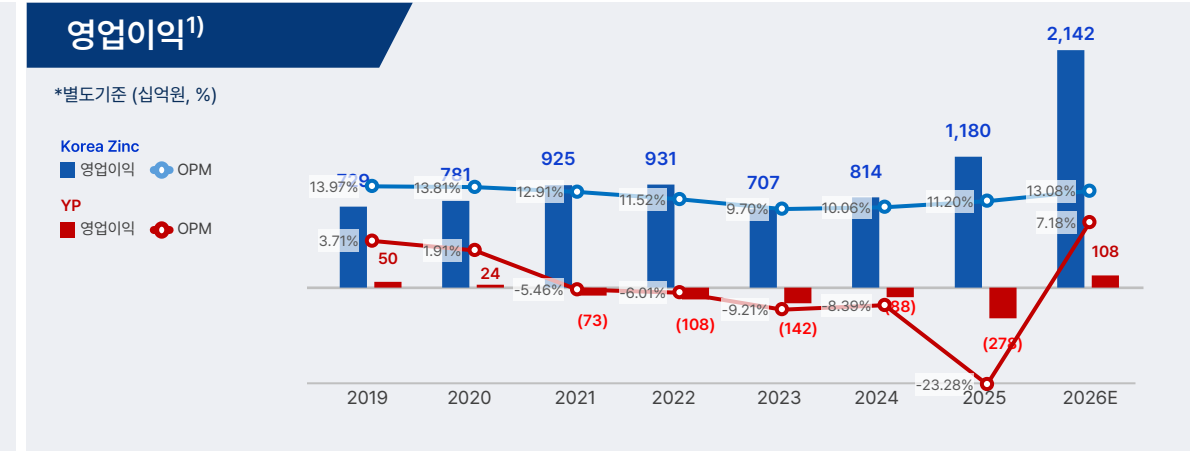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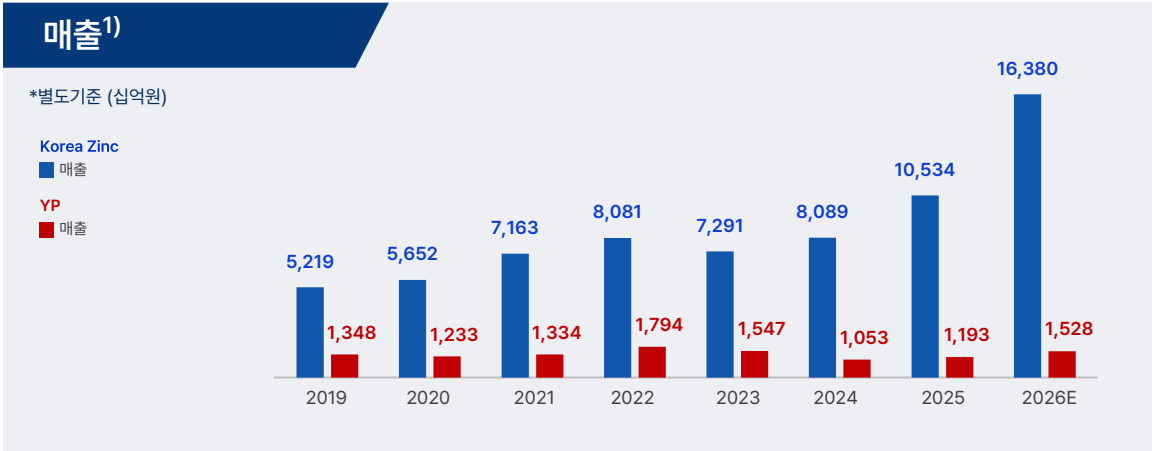


*시작 기간: 최윤범 회장 대표이사 취임 일자
*Source: Bloomberg

*TSR: [(current price - purchase price)+dividends]/purchase price
*시작 기간: 최윤범 회장 대표이사 취임 일자

3. 고려아연의 경영 성과 _ 주요 경영지표

- 지난 10년간 고려아연은 차별화된 회수 기술 경쟁력,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안정적인 원료 조달 역량을 기반으로 영풍 대비 압도적인 경영 성과를 지속 창출
- 매출 성장뿐 아니라 영업이익, ROE 및 ROIC 등 핵심 수익성 지표 전반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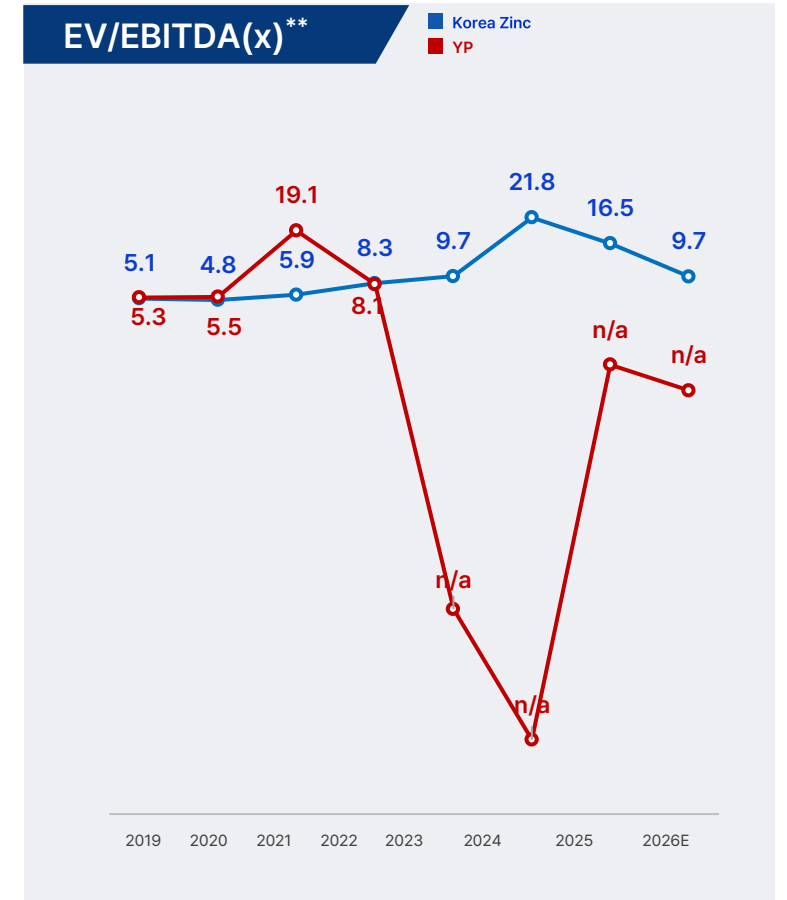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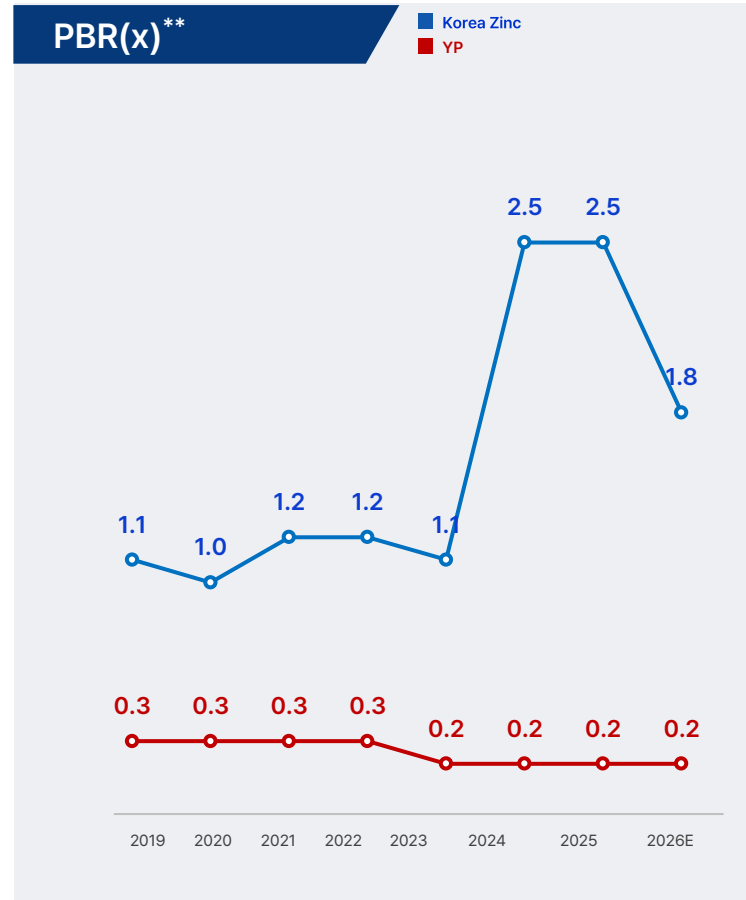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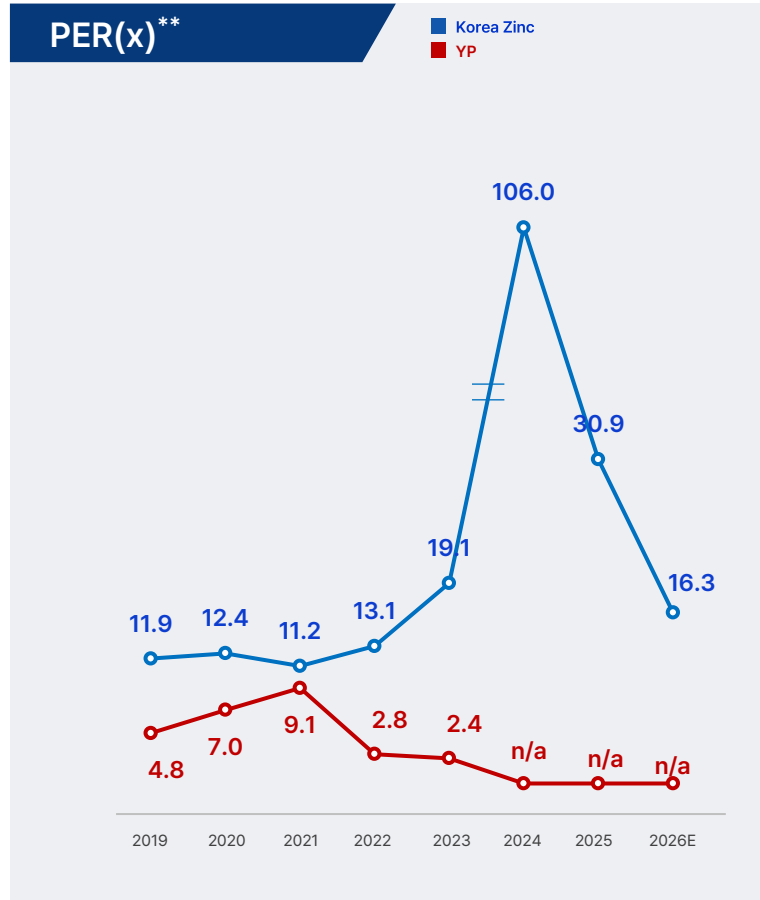
Source: DART 공시, Bloomberg

1) 2026년 컨센서스 기준, 단, 영풍은 증권사 커버리지 부재로 2026년 컨센서스가 없어 1Q26 실적 연율화 기준(1Q26×4) 적용

2) ROE, ROIC는 LTM(6.30일 Last 12 Months) 기준

4. 고려아연의 경영 성과 _ Valuation

- 고려아연은 높은 수익성·성장성과 적극적인 시장 소통을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유지한 반면, 영풍은 실적 부진 장기화로 밸류에이션 하락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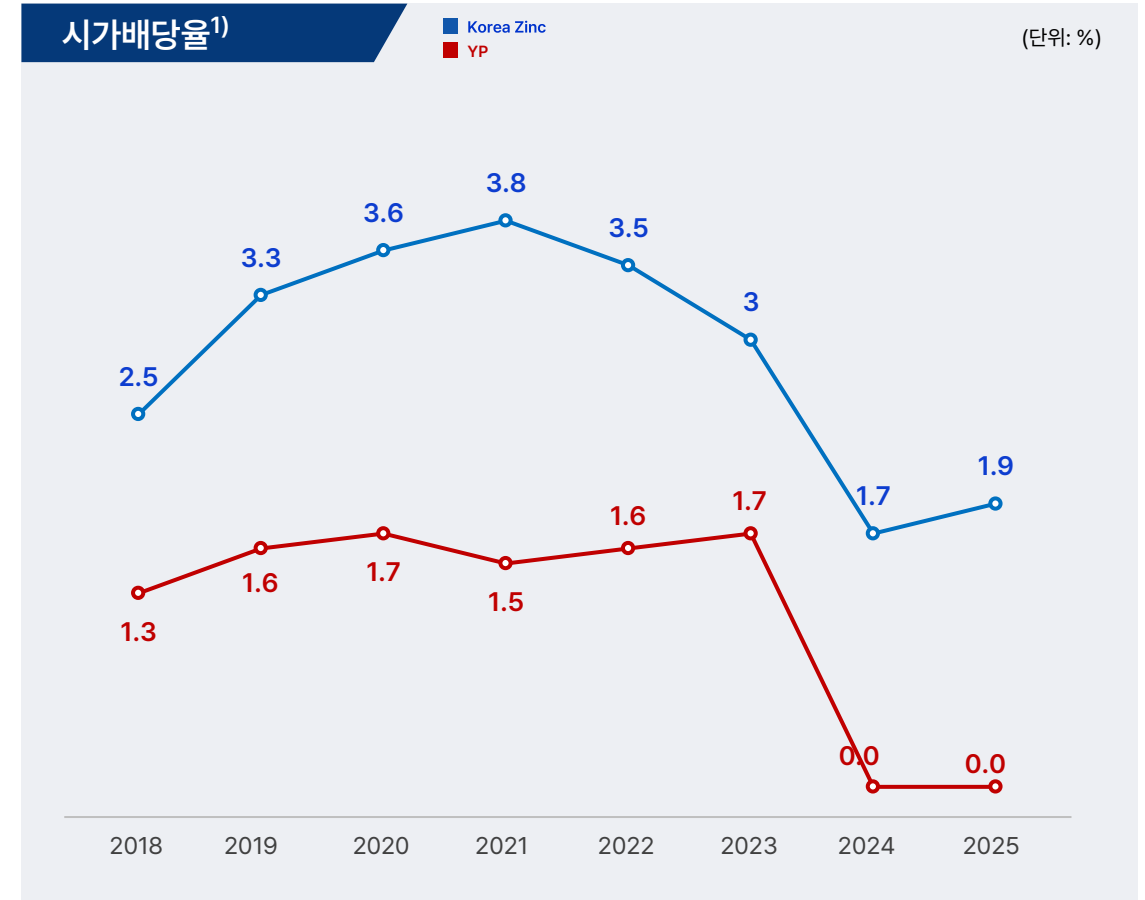


* Source: DART 공시, Bloomberg

** 2026 Forward 기준 (6/30 추가), 단, 영풍은 증권사 커버리지 부재로 2026년 컨센서스가 없어 1Q26 실적 연율화 기준(1Q26×4) 적용

5. 고려아연의 경영 성과 _ 배당

- 고려아연은 안정적·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을 지속**한 반면, 영풍은 **최근 배당을 대폭 축소**하며 주주환원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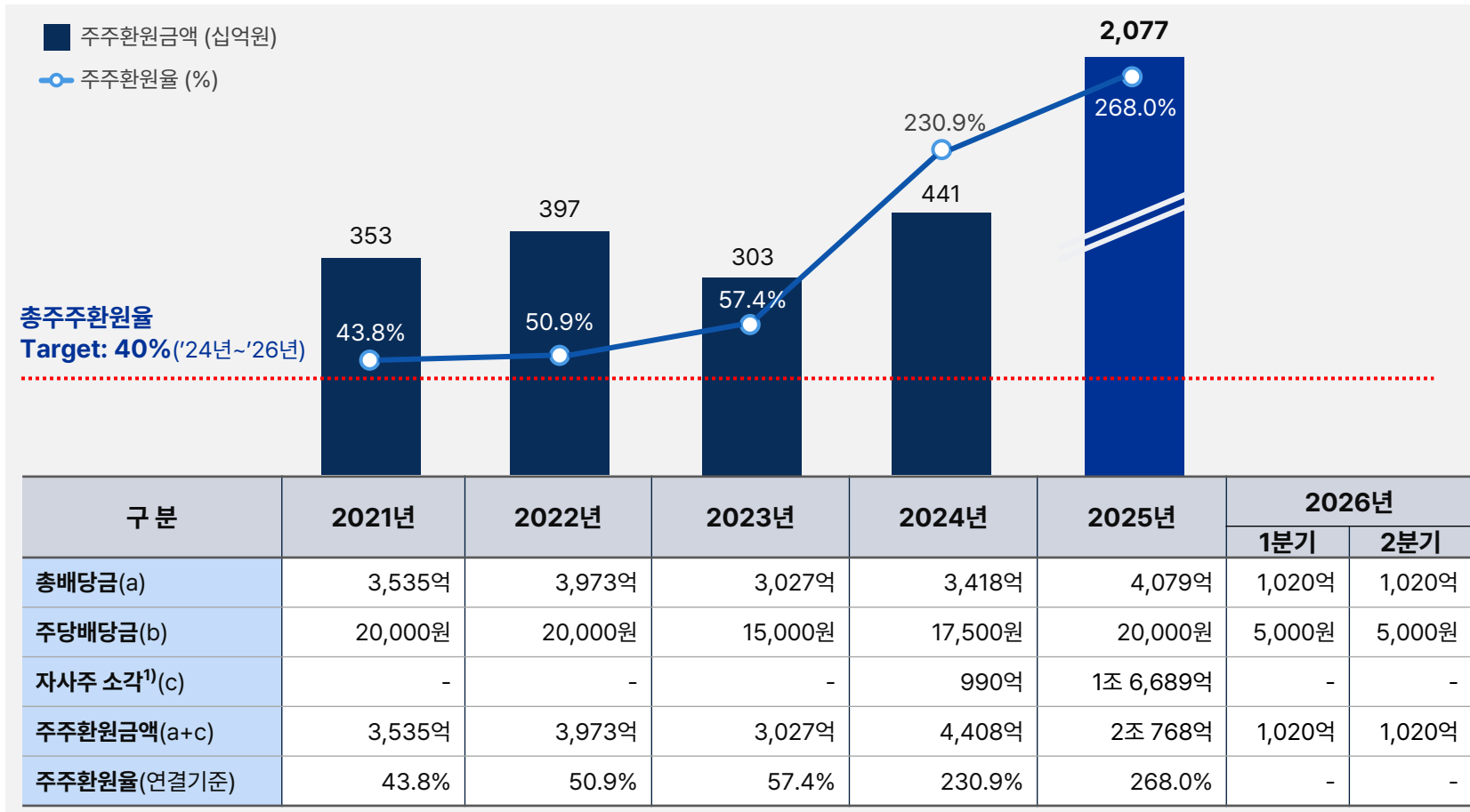


* Source: DART 공시, Bloomberg

1) 영풍 2024년, 2025년 시가배당율이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수치로 0.0% 기입, 영풍은 '24년 액면분할(1:10)로 진행

6. 고려아연 주주환원 정책 이행현황

- 주주환원을 40% 이상 유지를 목표로, 공개매수 취득 자사주 전량 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와 실행력 강화
- 선배당 발표 및 분기배당 실시를 통하여 배당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체계 구축



1) 자사주 소각은 실제 소각 완료 시점 기준

2) 소각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주주환원

주주환원을

- 3년 평균('24년~'26년)
연결기준 주주환원율 40% 이상 유지
- '24년 공개매수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0,030주 전량 소각완료('25년)
- 6월, 9월, 12월 각 680,010주 소각 완료
- 자기주식 246,665주 소각 계획 발표('26년)
- 이사회 결의(2/23), 1년 이내 소각 예정

배 당

- 2026년부터 분기배당 시행
- 1분기 배당금 주당 5,000원 지급 완료(6월)
- 2분기 배당은 8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결의 완료
- 주당 배당금: 5,000원
- 배당 기준일: '26년 8월 20일
- 배당금 지급 예정: '26년 9월 4일

7. 고려아연 주주환원 정책 _ 액면분할 재추진

- '25년 1월 임시주총에서 높은 주주 지지로 가결된 액면분할은 MBK·영풍 소송으로 추진이 중단됐으나, 약 18개월 만의 소송 취하로 결의 유효성 확정
- 주식 액면분할 재추진을 통해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통 주식수 확대에 따른 유동성 개선 및 주주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

주식 액면분할 재추진

('25.1월 임시주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가결

'25.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액면분할 안건 **상정**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69% 찬성률로 가결**

안건취지

-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없이 유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분산 효과로 주주가치 제고 기대

(MBK·영풍)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MBK·영풍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임시주주
총회 직후 법원에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5년 액면분할에 반대·소송 제기 후, '26년 동일 안건을
직접 주주제안하는 상반된 행보로 주주 및 시장에 혼선을 야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권고 결정(7.30)

**MBK·영풍 18개월 만에
소송 취하**

액면분할 결의 유효성 확정

기대효과 및 향후 프로세스

기대효과

1. 투자자 접근성 확대

- 주당 가격 인하를 통한 개인·소액투자자의 투자 접근성 제고

2. 유동성 제고

- 유통주식수 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개선 기대

3. 주주기반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

-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한 중장기 기업·주주가치 제고 기대

향후 프로세스

이사회 재결의 후 액면분할 효력발생 및 거래재개까지
약 2개월 내외 소요 예상

이사회
결의

관계기관(거래소 등) 사전협의
주식분할 일정 정정공시
변경상장 사전 절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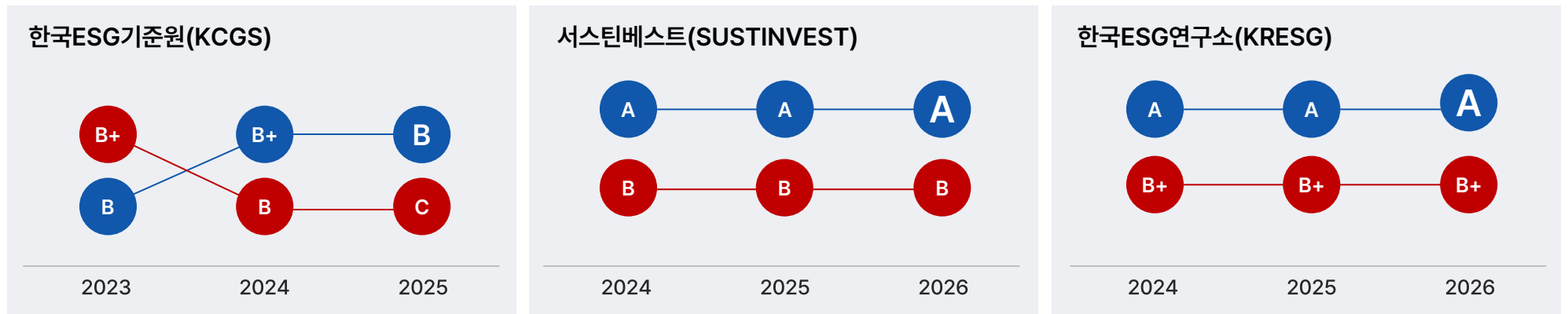
효력발생
거래재개

8. 고려아연의 경영 성과 _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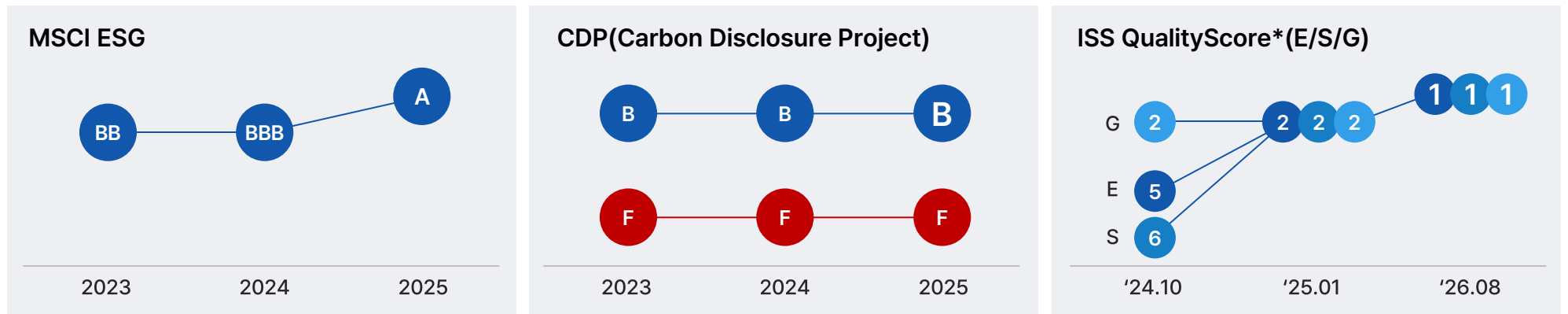
- 고려아연은 재무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특히 **Governance 영역**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임원 보수체계 개편, 이사회 평가 제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조적 개선을 추진
 - 고려아연은 2024년 서스틴베스트와 한국ESG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주요 3대 평가 기관으로부터 “하반기 ESG 선도 기업” 및 “비철금속 부문 1위 기업”으로 인정
 - CDP 이니셔티브 대응으로 ‘22 CDP코리아어워드’에서 기후변화 분야 탄소경영 특별상 수상(Score B), 공급망 관리에 특화된 EcoVadis 이니셔티브도 대응 중
 - 2026년 현재, ISS Quality Score기준 ESG 전 부문 1등급 평가 유지

● KZ ● YP

국내기관



해외기관



* ISS Quality Score 2024년 11월부터 평가 대응 시작

03.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1. 거버넌스 개선사항 요약

01 거버넌스

2023년~2024년

1. 이사회 내 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
- 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공식화

2. 준법/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 준법지원인 선임, 준법통제규정 제정 완료

2025년

1. 이사회 구조 선진화

- 독립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및 독립이사 비중 확대 (68%)
- 외국인 및 여성 독립이사 선임 확대를 통해 이사회 다양성 강화
-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를 80% 달성 (시장 평균 55%)

2. 이사회·위원회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 BSM¹⁾ 기반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위원회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 외부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을 통한 이사회 투명성 강화
- 경영위원회 설립을 통해 전략·투자 관련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강화
- 독립이사 대상 정기 교육·간담회 운영 및 이사회 지원 체계 강화

3. 성과 연계형 임원 보수정책 개선

- 재무성과 지표 및 중장기 가치 중심의 임원 성과보상 체계 구축
-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와의 연계 강화

2026년~

1.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를 100% 달성

- '25년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를 100% 달성

2. 주주권익 보호와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전문성 강화

- BSM 기반 이사 선임 통해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 개정상법에 의거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1인 → 2인) 추진
- 주주참여 확대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이사(감사위원) 예비후보 주주 추천 공모 진행

3. 이사회 평가제도 피드백 반영한 이사회 운영 고도화

- 외부 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한 개선과제를 이사회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효율성·투명성 강화
-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1일 → 3일)를 통해 안건 검토 시간 확보
- 신규 독립이사 대상 On-Boarding 교육 프로그램 확대

02 주주환원

3. 총주주환원을 중심 주주환원 제도 발표

- 기존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에서 연결기준 3개년('24~'26년) 평균 총주주환원을 +40% 이상으로 상향

4. 대규모 자사주 소각 발표

- 공개매수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주) 소각 계획 공시 및 집행 완료
- 정부의 신규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도록 '25년 결산배당 지급 확정 (20,000원/주)
- 기 변경된 정관에 따라 선배당금 확정 및 공시 완료

4. 분기배당 도입 및 자기주식 소각 발표

- 1분기 분기배당 실시 (5,000원/주)
- 자기주식 246,665주 1년 내 소각 진행 예정 (2/23 이사회 승인)
- 연결기준 주주환원을 40% 이상 유지 목표
- 선배당금 확정 통해 배당 예측성 강화

03 주주소통

4. 중장기 성장전략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유

- Investor Day('23년) 최초 실시
- 밸류업 공시를 통해 1)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 2) 수익가치제고, 3)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계획 발표

5. C-Level 및 독립이사 참석 투자자 미팅 확대

- C-Level 미팅 확대: 20건('23년) → 54건('24년) → 81건('25년)
- 밸류업 계획 이행 현황 공시 (9월)
- 국내외 거버넌스 NDR 진행 (3회)

5. 국내외 투자자 소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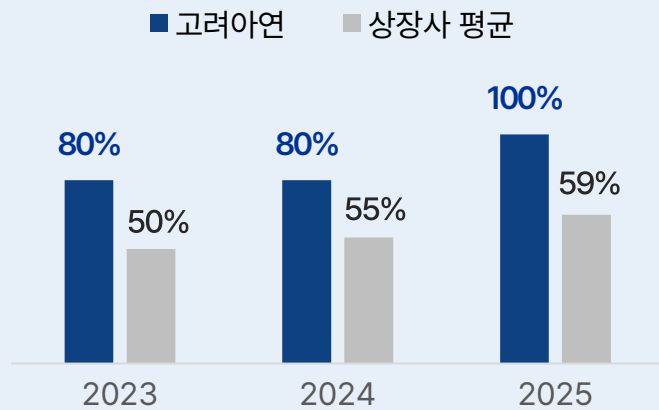
- 밸류업 계획 이행 현황 공시 완료 (2월)
- C-Level 미팅 지속 확대 ('26년 상반기 기준 총 44회)
- 국내외 거버넌스 NDR 진행 (총 3회 완료)

1) BSM(Board Skills Matrix): 이사회 구성원(사내·독립이사)이 보유한 전문 역량·경험·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평가하는 표

2-1. 거버넌스 |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 '25년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의 당사 준수율 100%로 상장사 평균(59%)을 크게 상회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총 3개 항목 개선완료

상장사 대비 높은 핵심지표 준수율¹⁾



핵심지표 준수율 '24년 80% → '25년 100%
핵심지표 전 항목 개선 완료, 100% 준수율 달성

1. '25년 미충족 항목은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 항목 준수
2. 독립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 이사회 독립성 제고
3.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적용 → 소수주주 보호

'26년 개선 완료

'25년 개선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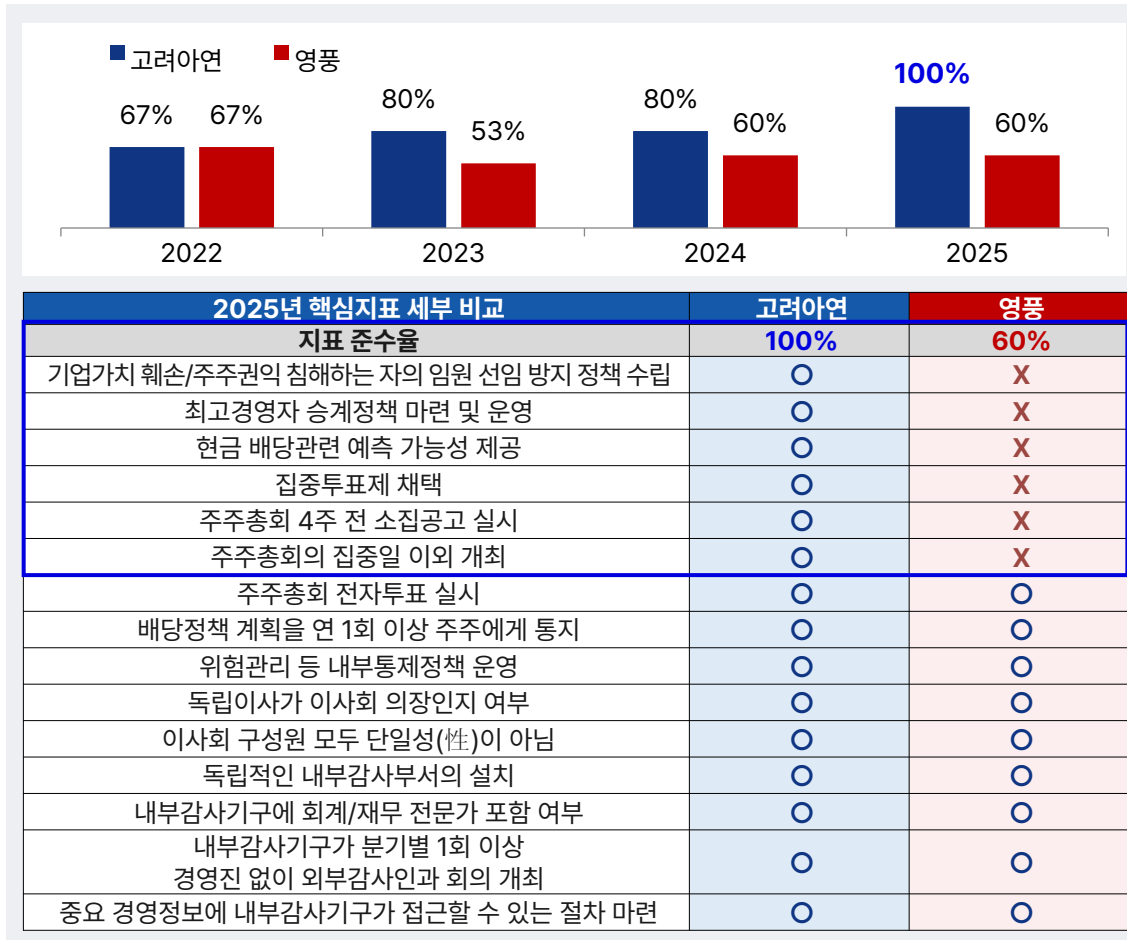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상장사 평균 준수율		고려아연		
	'23년	'24년	'23년	'24년	'25년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97%	98%	O	O	O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포함 여부	87%	88%	O	O	O
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78%	81%	O	O	O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운영	75%	76%	O	O	O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66%	72%	O	X	O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하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56%	59%	O	O	O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55%	63%	O	O	O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50%	53%	O	O	O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46%	49%	O	O	O
배당정책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1%	47%	O	O	O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31%	35%	O	O	O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29%	39%	O	X	O
현금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17%	42%	X	X	O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13%	14%	X	O	O
집중투표제 채택	3%	3%	X	O	O

1) 출처: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 포커스('25.8월), 윤춘 Legal Update('26.6월), 직전 사업연도 제출 이력없는 기업 제외

2-1. 거버넌스 |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고려아연 vs. 영풍)

- 고려아연은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한국거래소의 핵심지표를 전면 이행(100%)하며 주주 보호와 책임경영을 고도화
- 영풍은 이사 임기 연장, 소수 주주 제안 전면 부결 등 기존 지배구조 유지에 집중하며 개정 상법의 실질적 효과를 제한, 핵심지표 준수율도 60% 수준에 그침

2025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비교 (O : 이행, X : 미이행)



영풍 : 2026년 주총의 의사결정 방향은 기존 지배구조 유지에 초점

- '26년 영풍의 주총에서 기존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안건은 가결 vs. 주주제안은 전면 부결

제안자	안건	가결여부	설명
영풍	이사의 임기 변경 (1년 → 2년)	가결	임기 변경과 동시에 기존 이사 전원 사임 및 동일 인사 재선임을 병행, 이사회 구성 권한 구조를 기존 체계와 유사하게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해석 가능
주주	주주총회 대리인 범위 제한 조항 삭제	부결	현행 정관은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상법 원칙과 달리, 대리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삭제 제안이 부결되며 기관·외국인·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개선은 이뤄지지 않음
주주	ESG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	부결	ESG 관련 논의를 이사회 내 정식 위원회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지만 부결로 인해 기존 자문·실무 중심 운영 구조 유지
주주	현물배당 및 분기배당 도입	부결	배당 수단 및 주기 다변화를 통해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정책 유연성을 제고하는 제안이었지만 모두 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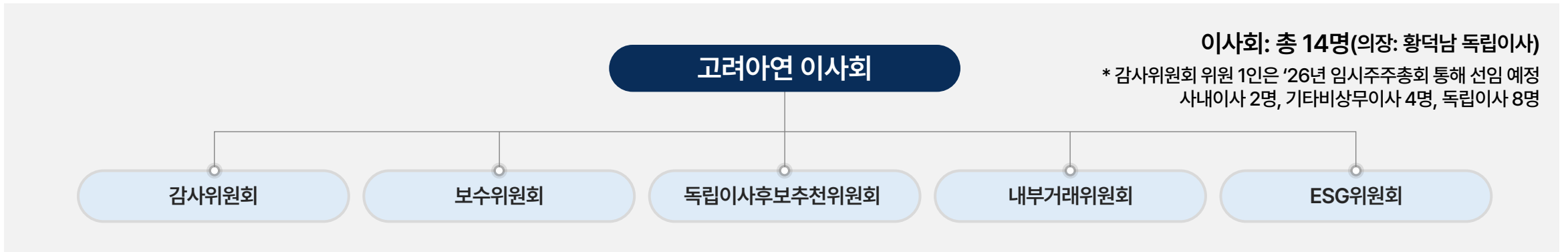
- 영풍은 사내이사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위원장을 겸임
→ 핵심 위원회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될 수 있음

"동일한 규제 환경 아래, 고려아연은 핵심지표 100% 달성 등 지배구조 개선이 이어지는 반면, 영풍은 기존 구조 유지를 우선시하며 투자자 기대와의 간극 확대"

2-2. 거버넌스 | 이사회 구조 및 운영 선진화

-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와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이사회 구조·운영·제도 전반의 거버넌스 고도화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 개선 ↑

-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를 통한 안건 검토 시간 확보 및 의사결정 심의 충실성 강화
 - 사전 통지 기한 1일 → 3일 확대
- 외부 전문기관 평가 결과 기반 이사회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추진
 - 이사회 운영계획 반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투명성 강화

개정 상법을 반영한 선제적 제도 정비 ↑

- 개정 상법을 반영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정비
 - 자기주식·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이사충실 의무 제도 정비
-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의 재상정 추진
 -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및 경영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연간 교육 체계 개선 및 강화 ↑

- 연간 교육 로드맵 기반 정기적·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공통교육 1회, 특별/전문교육, 현장(사업장) 방문 1회
- 독립이사 만족도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육 체계 지속 개선 및 운영 실효성 제고

2-3. 거버넌스 |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 '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BSM(Board Skills Matrix)에 기반하여 International, Financial/M&A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이사 3인 선임
- 이사회 다양성을 강화하고 Project Crucible 관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Walter McLallen 이사 선임

Board Skills Matrix(BSM)										← 신규선임 →					
	사내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Skills/Background	최윤범	박기덕	황덕남	김보영	권순범	서대원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이선숙	Walter F. McLallen	최연석	강성두	김광일	전문성 비중
Leadership	●	●	●										●	●	36%
Financial/M&A		●					●		●		●	●		●	43%
Operations	●	●													14%
Risk								●							7%
Audit						●		●			●				21%
International	●	●		●			●				●				36%
Industry/Tech	●	●											●		21%
Strategic Planning	●	●					●								21%
Public Affairs			●		●	●	●	●							36%
Legal	●		●		●					●				●	36%
ESG				●					●						14%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2-4. 거버넌스 | 이사회 위원회 구성

- 신규 선임된 독립이사의 BSM 전문성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 고도화

위원회 현황



1) 위원회 개최 시점에 위원장 선임 예정

2-5. 거버넌스 |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주주 공모 진행

- 상법 개정 시행(9/10일) 이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 후보 Pool 확보 추진
- 주주 추천 공모를 통해 후보 다양성과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회 후보군 다양성 및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추진 배경 및 타사 사례

추진 배경

- '26.05.06 감사위원회에서는 9월 상법 개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 후보 발굴을 요청**
- 이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지속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후보군 확보를 위해 **독립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

“회사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독립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 공모 추진”

타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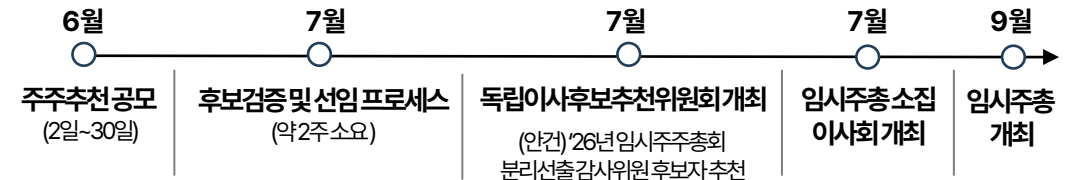
기업명	도입 및 시행시점	추천 자격요건	접수기간	결과
KT	'23.05 도입 (‘23년, ‘25년 2회 운영)	1주 + 6개월 보유	8일	7인 중 주주추천 3인 선임
현대모비스	'20년 도입 (매년 상시 운영)	제출일 현재 주식 보유	26일	2인 중 주주추천 1인 선임
BNK금융 지주	'26년 도입 (1회 운영)	1주+6개월 또는 3% 이상 보유	15일	5인 중 주주추천 3인 선임

공모 개요 및 추진일정

공모 개요

목적	• 주주 추천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 및 다양성, 전문성 보유한 독립이사 후보 Pool 확보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보유 주주 또는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독립이사 후보자격	• 회계·재무 전문가(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로서, 아래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전문성 보유 ① 법률/규제, ② 산업 이해, ③ 글로벌 역량, ④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접수기간	•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6월 30일(화) * 28일 간
접수방법	• IR전용 이메일, 등기 우편
제출서류	• 독립이사 예비후보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추천자 주식 보유 증명서 등
기타	• 정관 개정 및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전제로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임시주주총회에 최종 후보로 추천될 예정

추진일정



2-6. 거버넌스 | 이사회 교육 강화

- '25년 이사회 평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26년 이사회 연간 교육 로드맵 수립 및 추가 교육 확대 중
 - 기존 회사 사업 이해 중심 교육에 더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거버넌스/자본시장/규제/ESG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보완

현행 (~ '25년)

- 회사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산업 동향 관련 교육 신설
- 이사회·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회 진행
- 독립이사의 전문성 및 경영 이해도 강화를 위해 교육 체계를 정례화

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기	비고
회사 및 산업 교육	고려아연 역사/미션, 제품 및 시장 설명	연 1회	온보딩 교육으로 진행
온산 제련소 방문	주요 생산 공정 및 제련소 운영현황 이해	연 1회	현장 이해도 제고
이사회·주총 안건 설명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 및 질의응답	정기·수시	이사회/주총 전 평균 4시간 실시
독립이사 간담회	주요 경영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	정기·수시	독립이사 의견 청취

개선안

- '26년부터 이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회사 산업 이해도 제고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교육, 온라인 러닝 과정을 추가 도입
- 독립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역량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기	비고
① 회사/산업 교육	법률/회계/규제/ESG 등 외부 전문기관 교육 추가	정기·수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세계여성이사협회, 삼일PWC, KPMG아카데미 등 심화 강의 제공
② 온라인러닝	SERICEO	수시	경영/경제/리더십 강의
	LinkedIn Learning	수시	글로벌 비즈니스/산업/리더십 교육
온산 제련소 방문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이사회·주총 안건 설명회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독립이사 간담회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3. 2026년 거버넌스 개선 계획

01 이사회 운영 개선

- 신규 독립이사 대상 **On-Boarding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공통교육 1회(회사 사업 이해도 제고), 특별강의 3회 (개정 상법, IFRS, 공시), 공장견학 1회 등
- **외부 전문기관 평가 결과 기반 이사회 개선과제 지속 도출 및 추진**

02 주주환원 확대

- **분기배당 도입 및 실시** (1분기 배당: 5,000원/주, 6월 지급 완료)
- **자기주식 246,665주 1년 이내 소각 진행 예정** (2/23 이사회 승인)
- **연결기준 주주환원을 40% 이상 유지 목표, 선배당금 확정 통한 배당 예측성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 지속**

03 거버넌스 개선

- '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100% 달성 완료**
- **개정상법 반영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추진 (1명 → 2명)**
- 자기주식·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이사총실 의무 등 제도 정비 완료

04 투자자 소통 강화

- **독립이사 및 C-Level 주관 투자자 소통 지속 확대 목표** *('24년) 54회 → ('25년) 81회 → ('26년 상반기) 44회
- **거버넌스 NDR** (2,3월 실시 완료 및 8월 예정) 을 통해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회사 정책과 운영에 적극 반영
- 영문 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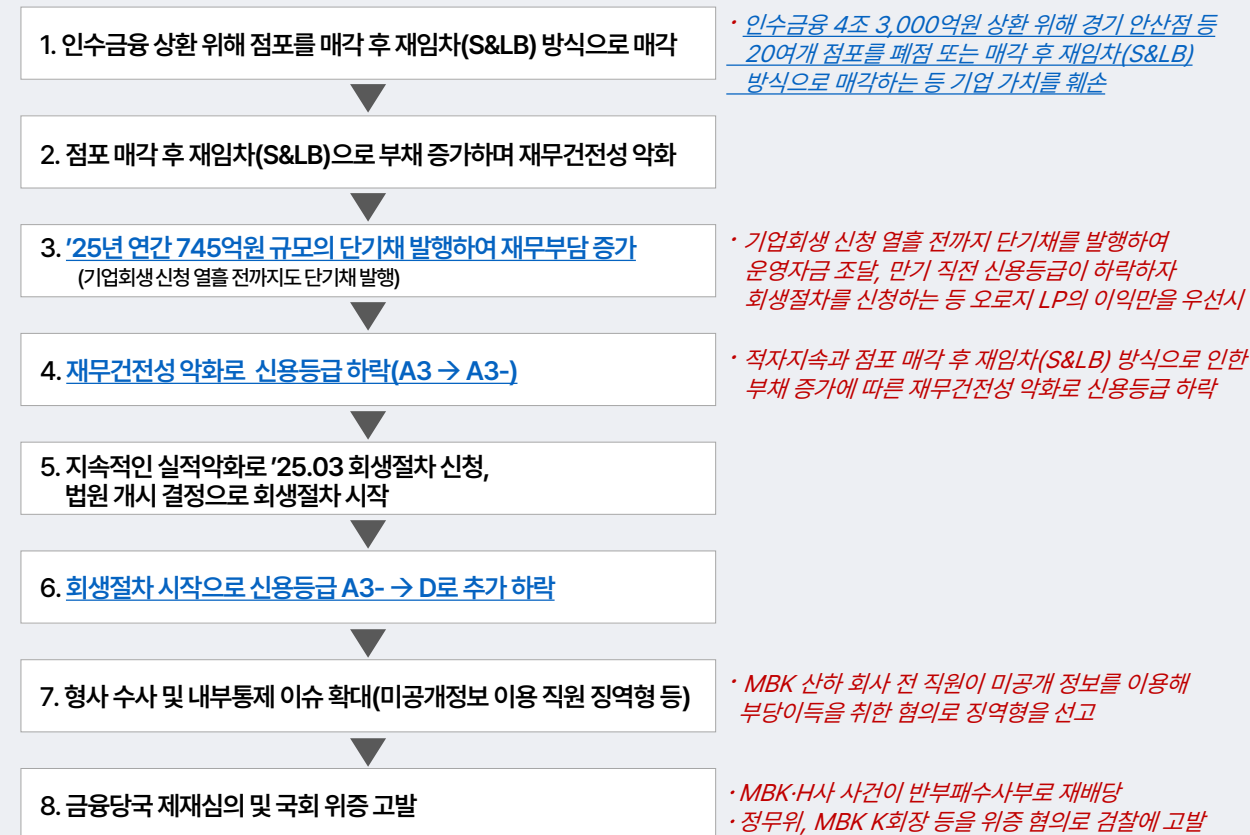
04.

MBK·영풍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1-1. MBK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_H사 사례

- MBK는 'H'사의 실적 악화 상황에서도 경영 정상화보다 인수금융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및 단기 자금 조달에 집중함으로써 재무건전성과 기업가치 훼손 우려 초래
- 금감원의 중징계 사전 통보, 검찰 수사, 정무위의 위증 혐의 고발 등 형사·제재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확대되며, MBK의 구조적 거버넌스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됨
- MBK의 경영 방식은 장기 기업가치 제고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MBK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거버넌스 및 주주가치 훼손 과정



MBK 사례에서 확인된 거버넌스 실패 유형



1. 재무 통제 실패

- 단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요 자산 매각에 따른 실적 악화
- 부채 급증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 신용등급 하락 및 회생절차 시작



2. 법규 및 규정 통제 실패

- 금감원, 국민연금 등 LP 이익 고의 침해 여부 수사 중,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사전 통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GP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 검찰, 신용등급 하락 인지 상태에서 대규모 채권 발생 후 기업회생 신청으로 투자자에게 손실 입힌 혐의로 수사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혐의 징역형 선고
- 정무위, MBK K회장과 K부회장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

1-2. MBK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_L사 사례

- MBK의 'L'사 경영권 인수 이후 **횡령·내부통제 부실, 대규모 정보유출 등 중대한 경영 리스크**가 반복되며 지배주주로서의 관리·감독 역량에 대한 우려 확대
- 'H'사 관련 신용위험이 'L'사로 전이되며 자산건전성 부담이 확대되는 등, **MBK의 투자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역량 및 투자기업 간 이해상충 우려가 지속 제기**

국내 대형 카드사 'L'사

- **2019** : MBK, 약 1.38조원 규모 컨소시엄 통해 'L' 사 경영권 인수
 - MBK는 지분 60%를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사
- **2023** : **10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내부통제 부실 노출**
 - 직원 2명과 외부 협력업체 간 부실 계약이 체결,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 선정·계약 검토·날인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등 내부통제 전반의 미흡 사항 지적
- **2025** : **297만명 규모 신용정보 유출사고 발생**
 - 보안 패치 미실시, 중요정보 암호화 미흡,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관리 부실이 확인되며 사이버 리스크 관리 역량의 한계 노출
- **2025** : **'H'사 관련 채권 793억원 전액 '추정손실' 분류**
 - 이 중 약 600억원이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 채권으로, MBK 계열사 간 익스포저가 'L'사의 자산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

'MBK의 반복적인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 평가'

1. 내부 통제 실패

- **'L'사 직원 2명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부실 계약을 체결, 2020년 10월~2023년 5월 총 105억원의 회사 자금 지급**
- 이 중 66억원은 페이퍼컴퍼니 및 가회사를 통해 사고자들에게 귀속돼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혐의가 확인
-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 선정·계약 검토 등 내부통제 전반의 부실을 지적하며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 미흡 확인**

2.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리스크 발생

-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2026년 금융당국으로부터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
- 보안 패치 미실시, 중요정보 암호화 미흡, 백신 미설치 등 기본적 보안관리 부실이 확인되며 MBK 경영하의 정보보호 및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 확대

3. 'H'사 리스크 전이 및 자산 건전성 부담 확대

- **'L'사는 'H'사 관련 채권 793억원 전액을 '추정손실'로 분류, 구매전용카드 거래 확대 과정에서 'H'사 신용위험이 직접 전이되고 관련 거래도 2년간 10배 이상 급증**
- **'H'사 구조조정 지연과 'L'사 제재가 겹치며 자산건전성 부담이 확대되고, MBK의 투자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역량 및 투자기업 간 이해상충 우려 부각**

1-3. MBK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_ O사 사례

- MBK의 'O'사 인수 이후 수익성 악화 속 비용 효율화와 대규모 인력·조직 재편이 추진되며, 핵심 인적자본 및 장기 경쟁력 훼손 우려가 확대
- H사에 이어 'O'사에서 '비용절감 우선' 경영 논란이 반복되며, MBK가 지속가능한 성장보다 단기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를 우선한다는 시장의 우려 재부각

국내 의료기기 기업 'O'사

- ① 'O'사는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으로, 글로벌 생산·영업망과 R&D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대표 의료기기 기업으로 평가
- ② 2023년 MBK 컨소시엄은 약 2.5조원을 투입해 'O'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공개매수를 거쳐 비상장 체제로 전환
- ③ 인수 이후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비용 효율화 필요성 부각
- 2025년 연결 매출은 1조3,327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했으며, 판관비 역시 7,145억원으로 증가해 비용 부담이 확대
- ④ 이에 MBK 컨소시엄은 일부 사업부문의 직무를 폐지하거나 기존 직원을 교육·대기조직 등에 배치하는 등 대규모 조직 및 인력 재편을 추진
- 직원들은 사실상의 퇴직 유도라고 주장, 임산부·육아휴직 복귀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논란
- ⑤ 'H'사 사태 이후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규제적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O'사에서 비용절감과 인력 효율화가 우선되며 장기 기업가치와 핵심 인적자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부각

'H'사에 이어 'O'사에서 대규모 비용·인력 효율화 논란이 반복, MBK가 장기 기업 경쟁력보다 단기 수익성 개선과 투자금 회수에 치중한다는 시장의 우려 재부각

* 출처: 언론 보도, DART 공시

1. 대규모 인력·조직개편 논란

- 'O'사는 일부 직무 폐지와 조직 통합, 교육·대기조직 배치 등 대규모 인력 재편을 추진하며 사실상 구조조정 논란이 제기
- 일부 임직원들은 반복적인 퇴직 제안 및 보직 해제 등을 사실상 퇴직 압박으로 주장
- 임산부·육아휴직 복귀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며 노동 리스크 우려 확대

2. 핵심 인적자본 및 장기 경쟁력 훼손 우려

- R&D·영업·지원조직 통합과 비용 효율화가 병행되며 핵심 인력 이탈 및 사업 실행력 저하 가능성 부각
-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인 제품개발·임상·현장지원 인력 축소는 글로벌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기 비용절감 중심 경영은 중장기 성장 기반과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 증가

3. 'H'사 사례와 유사한 '비용절감 우선' 경영 논란 재현

- 'H'사에 이어 'O'사에서 비용절감·인력 효율화 중심의 경영 패턴이 반복되며, MBK가 장기 성장보다 단기 수익성 및 투자금 회수를 우선한다는 우려가 확대
- 'O'사 사례는 MBK가 인수기업의 핵심 인력과 장기 성장 기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

1-4. MBK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_ Y사 사례

- ‘H’사에 이어 ‘Y’사에서도 동일한 경영 실패 패턴이 반복, MBK 매각 직후 ‘Y’사는 사업구조 재편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MBK경영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
- MBK는 PE 펀드의 구조적 특성상 정해진 투자기간 내 펀드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 기업·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영주체로서의 적합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

국내 철강 구조물 기업 Y사

① ‘Y’사는 과거 초고층 건물과 플랜트 건설을 위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

② 2009년에 MBK가 1,000억원에 인수한 후, 회사는 기술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대신 단기 매출에 집중하여 저가 해외 수주를 공격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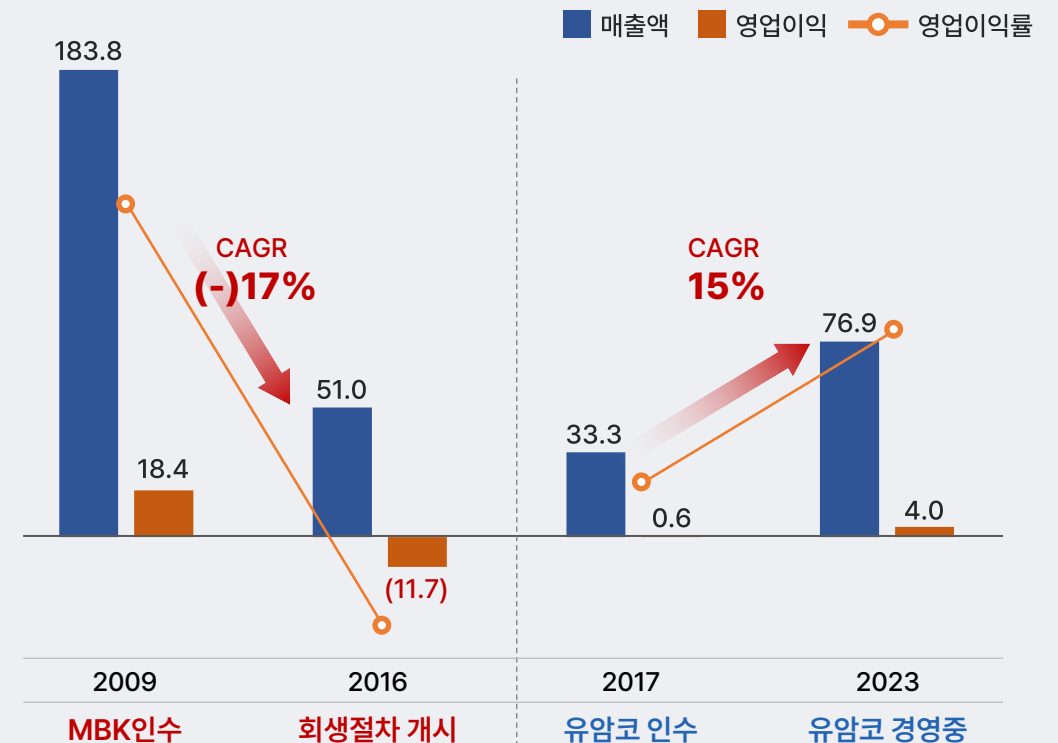
하지만, 무리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및 저가 수주 버블의 붕괴,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실적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4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협약 체결 이후 임직원 70%를 가량 감원하였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수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지속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2016년 ‘Y’사는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MBK는 2017년 ‘Y’사를 496억원에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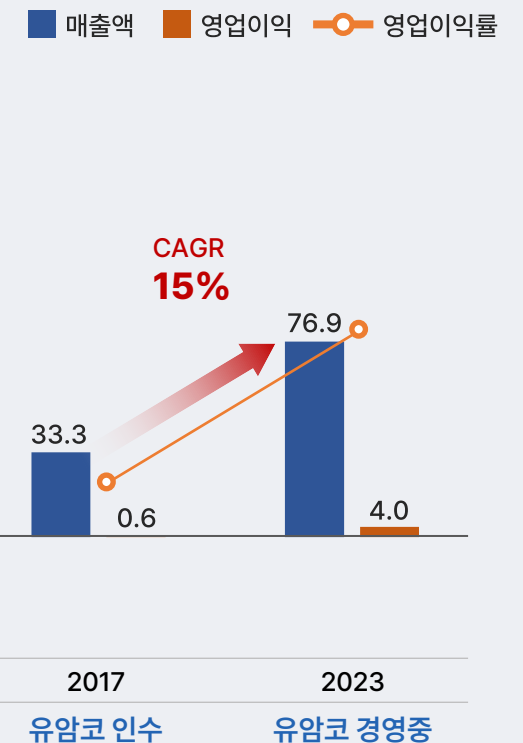
이후 ‘Y’사는 사업구조 재편 등을 거치며 2017년 흑자전환에 성공, 매각 1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

MBK의 투자실패 사례는 장기 경쟁력 확보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

경영실적(MBK 운영)



경영실적(유암코 운영)



1-5. MBK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_ B사, I사, N사, D사, C사 사례

- 투자 참여한 기업에서 과도한 배당 지급을 통한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배당 구조라는 비판, 단기간 투자금 회수를 위한 구조조정, 부진한 경영실적, 재무건전성 훼손 및 주주가치 침해 패턴 반복

논란사례

B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 **투자 참여 이후 과도한 배당 지급으로 소수 투자자에게 혜택 제공(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B사의 과도한 배당을 두고 비판 제기)**
- 경쟁사와 소송, 가맹점 상대의 갑질 등 논란 지속
- 2022년 7월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 번에 61% 올려 점주들과 갈등 발생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 일방적으로 해지, 물품 공급 중단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국정감사지적사항

“그 다음에 B사 같은 경우는 점주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 물품 공급 중단으로 공정위에서 3억 5000만 과징금 부과받고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I사 국내 보험사

- **10년간의 장기투자를 약속했음에도 5년만에 매각**
- **인수 6개월 내에 32명의 임원 중 18명 퇴출, 평직원 30% 이상 감축**

국정감사지적사항

“지금 I사생명 때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바로 치운 거예요”
 “... I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수 6개월 내에 32명의 임원 중 18명이 퇴출되고 평직원 30% 이상 감축...”

N사 국내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 2013년 인수 이후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88%, 순이익은 200% 감소
- 2015년 인수를 위해 설립된 SPC와의 합병 이후, 'N'사는 인수 부채를 떠안게 되어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실적이 더욱 악화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순손실을 포함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MBK는 우선주에 대해 주당 평균 47,000원의 배당금을 계속 지급

D사 국내 케이블 TV 기업

- **총 2조 2천억 원의 인수 비용은 전액 부채로 조달되었으며, 2008년 LBO를 통해 D사의 93.8% 지분을 인수함**
이로 인해 과도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여 인수 후 재정 안정성이 악화(부채비율은 2007년 388%에서 2023년 1,054%로 증가)
- 케이블 TV 시장의 선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부족으로 인해 순손실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MBK 파트너스의 불충분한 운영 역량을 대변
- 2021년에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통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진행

C사 국내 이커머스 기업

- 2022년 인수 후 단기간 내(2024년) 상장 폐지

2-1. 영풍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_ 지속되는 환경오염 및 조업정지 리스크

• 영풍 석포 제련소는 환경 오염으로 수차례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적 환경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리스크가 상시화 되어있으며, 기업가치·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위협

- 영풍은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환경개선 투자를 언급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2024년 환경개선 총당부채 적립액은 390억 원에 그쳤으며, 최근 4년 평균 집행액도 연 287억 원 수준으로 언급된 투자 규모의 약 29%에 불과. 특히 2024년 지하수 정화 총당부채는 '0원'으로 계상
- 외부회계감사법인, 5년 연속 감사보고서에 '환경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와 재무적 영향에 주의할 것을' 강조사항으로 명시(감사법인 변경 후에도 동일 사안 강조 지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할 통합환경허가 조건 5건 중 2건(토양오염 정화·제련 잔재물 처리)이 미이행 상태임을 공식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예고(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에서 조업정지까지 단계적 처분 가능)



영풍 석포 제련소의 지속된 환경 오염 및 조업정지 이력

1970.10 석포 제련소 준공	2013.8 봉화군, 제3공장 불법 건축 적발	2018.2 경상북도, 폐수 유출 적발 (조업 정지 20일 행정 처분)	2021.10 대법원, 영풍 측 상고 기각 (조업 정지 10일 확정)	2024.6 대구 고등법원, 영풍 측 항소 기각 (조업 정지 60일 인정)	2025.2.26 조업정지 1개월 30일 확정에 따른 조업정지 진행(2/26~4/24)	2025.3.19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 투자'를 약속 했으나 2024년 환경개선 총당부채 적립액은 390억 원으로 발표(YoY -54.2%)
1988 장형진 대표이사 사장 취임	2014 국회 국정감사, 석포 제련소 환경문제 첫 제기	2019.11 대구 지방법원, 대기 오염 물질 측정 조작 혐의로 임원 실형 선고	2021.11 석포 제련소, 최초 조업 정지(10일) 환경부,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 과징금 281억원 부과	2024.11.1 대법원, 영풍 측 상고 기각 (조업 정지 60일 확정)	2025.2.27 법원, 영풍 측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과징금 281억원 인정)	2025.3.19 외부회계감사법인, 5년 연속 감사보고서에 '환경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와 재무적 영향에 주의할 것을' 강조사항으로 명시
1993 장형진 대표이사 회장 취임	2015.3 장형진 대표이사 회장(등기 임원) 퇴임	2019.4 환경부, 특별 점검 및 폐수 유출 적발 (조업 정지 60일 행정 처분)	2022.12 환경부, 석포 제련소 통합 환경 허가 (제련소 운영 재개 조건)	2024.11.4 황산가스 감지기 상시 정상 작동 및 유지 관리 조건 위반 적발 (통합 환경 허가 위반이며 조업 정지 10일 행정 처분)	2025.3.4 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진행 일정 결정 (4/25~5/4)	2026.2.13 기후에너지환경부, 영풍이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할 통합환경허가 조건 5건 중 2건(토양오염 정화·제련 잔재물 처리)이 미이행 상태임을 공식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예고

* 출처: 언론보도, DART 공시

2-2. 영풍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_ 지속되는 안전사고 및 지배구조 리스크

- 영풍 석포 제련소에서는 수년 간 사고가 연이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내이사 2인이 구속기소** 되는 등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
 - 1997년 이래 **사망자 15명**을 포함한 재해사고 다수 발생
 - 2024년에는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영풍의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 기소됨**(영풍 사내이사, CEO/COO)
 - 영풍은 **대표이사들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주요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에 넘기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 동의 없이 고려아연 주식 전체를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함.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기능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로 평가



영풍 석포 제련소의 지속적인 안전 위반으로 인한 15명의 사망 사고 기록

1997 이모씨(조액팀 용접업무) 유모씨(조액팀 현장조장 15년 이상근무) 간장질환으로 퇴직후 사망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차량운전자 김모씨 사망. 봉화 소천면 고선리 31번 국도	2001 카드뮴 중독 노동자 최모씨, 경북대 병원에서 사망 2002 침전저류조 바지선 폭발사고로 유모씨 등 4명 사망, 김모씨 중상 오승렬씨 냉각탑 청소 중 추락사 (안전끈 미지급, 냉각탑 밑 그물망 없었음)	2010 주조1공장에서 추락 사고	2017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차량 운전자 이모씨 사망. 영월 김삿갓휴게소 2018 침전물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2023 제1공장 모터교체 작업중 급성 비소중독으로 노동자 김모씨 사망, 3명 입원(하청1명, 원청2명)	2024.3 제1공장 냉각탑 작업중 하청업체 노동자 오모씨 냉각탑 석고 제거 작업 중 이물질 맞아 사망 2024.8 하청업체 근로자 열사병 의심 사망 사고 발생 영풍의 CEO와 COO가 해당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체포
---	--	--------------------------------------	---	--	---

* 출처: 언론보도, DART 공시

Appendix

[별첨] 증선위 회계감리 결과 Summary

- 이번 감리 결과는 회사의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경영진 부정행위가 아닌, **투자자산 및 종속회사의 손상차손 인식 시점·평가가정·기간귀속 및 공시 절차상 보완**에 관한 회계처리 판단 이슈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 **내부통제관리체계 고도화, 임직원의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및 임직원 투자관리 프로세스 명문화** 등의 개선을 통해 **회계판단의 객관성과 내부통제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

조치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 2026년 6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려아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조치를 의결.
주요 조치는 중과실 판단에 따른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시정요구임.
-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최종 과징금을 약 84억 원(8,428,100,000원)으로 확정
- 다만, 본 조치는 고의적 회계부정, 투자 의사결정의 위법성, 경영진 부정행위, 횡령·배임, 법인자금 유용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핵심 쟁점은 투자자산 및 종속회사 관련 ①손상차손 인식 시점, ②평가가정 및 공시 적정성에 관한 회계적 판단** 차이임.

지적사항

주요이슈	핵심 지적사항	회사 소명
1.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 일부 투자자산 손상차손에 대해 '23년 조기 인식 필요	• 손상차손 자체는 '23년 및 '24년에 이미 인식·반영 . 쟁점은 손상 발생 여부가 아닌 인식 시점 및 기간귀속 판단 차이
2.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종속회사 관련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 '24년 재무제표에 이미 자진정정 완료. 자금 유출, 부당지원, 사익추구와 무관한 공시 절차상 이슈로 회사 자산 및 매출 규모 대비 매우 낮은 중요도의 사안임
3. 종속회사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 인수 직후 '22년 말 손상평가 및 손상차손 인식 필요	• 인수 후 약 1개월 시점의 손상평가 필요성은 제한적 이라고 판단. 외부감사인도 동의한 사항으로, 평가가정 및 기간귀속 판단 이슈
4.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외부감사 관련 지적	• 손상 점검·특수관계자 식별 절차 미흡 및 일부 감사자료 미제공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의견을 표명 . 자료 미제공도 외부 보유자료 관련 이슈로, 고의적 감사방해와는 성격이 다름

개선 방안

1. 내부통제관리체계 고도화

- 투자자산 및 영업권 손상징후, 주요 평가가정, 외부평가 검증 절차를 포함한 관리기준 수립
- 중요 회계판단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및 감독기능 강화
- 결산 전 주요 회계쟁점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사전 소통 및 검토 절차 강화

2. 임직원 대상 회계기준 교육 강화

- 외부감사인·회계전문가와 연계해 K-IFRS 제1036호 손상 평가 및 특수관계자 공시 교육 실시
- 결산 담당자와 내부통제 수행자의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3. 임직원 투자 관리 프로세스 명문화

- 임직원 투자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회사 투자와 주요 경영진 투자 간 이해관계 사전 점검
- 특수관계자 식별, 주석 검토 등 프로세스 체계화

[별첨] 고려아연 · 영풍 감리결과 비교

- 영풍은 4년간 정화의무 관련 총당부채를 반복적으로 미인식·과소계상하고, 자의적인 손상평가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것으로 증선위에서 '고의' 회계위반 판정을 받음
- '고의'는 회계감리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영풍의 위반은 단순 추정 차이가 아닌 수천억 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된 사안임

양사 지적사항 비교

고려아연

- 증선위 최종 판단: **중과실**
-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아닌, 손상차손 인식 시점 및 평가·공시의 회계적 판단 차이가 주요 쟁점
- 과징금(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63.2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지적사항	세부 내용
1.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감소에도 관련 평가손실(손상차손)을 과소계상
2.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 종속회사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미기재
3. 종속회사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으로 미인식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 투자자산 손실·손상에 대한 점검 형식적 수행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 절차 미흡 등 내부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사항 발생
5. 외부감사 방해	•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영풍

- 증선위 최종 판단: **고의(Ⅰ~Ⅱ 단계)**
- '고의' 조치는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선위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수천억 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한 것임.
- 과징금(회사: 20,474.1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4인: 1,511.5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담당임원, 前담당임원), 시정요구
- 과징금 20,474.1백만원은 회계 관련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 4년간 총당부채를 축소 계상

지적사항	세부 내용
1. 토양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 (제련소 주변지역)	•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1~'22년 총당부채를 미인식 • '23~'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방식을 적용, 총당부채 과소계상 • 연결·별도 '21~'22년 52,178백만원, '23~'24년 33,240백만원
2. 토양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 (주변 임야)	•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의무에도 '23~'24년 총당부채 미인식 • 연결·별도 '23년 10,598백만원, '24년 10,527백만원
3. 토양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 (제련소 하부)	•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토양에 정화의무에도 총당부채 미인식 • 연결·별도 '21~'22년 90,519백만원, '23~'24년 77,906백만원
4. 지하수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	• '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른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계약금액만 반영해 향후 정화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총당부채로 미인식 • 연결·별도 '23~'24년 111,412백만원
5.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 '22년 손상평가 시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 • '23년에는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자의적으로 제외해 손상차손 과소계상 • 연결·별도 '22년 34,790백만원, '23년 61,424백만원, '24년 △61,42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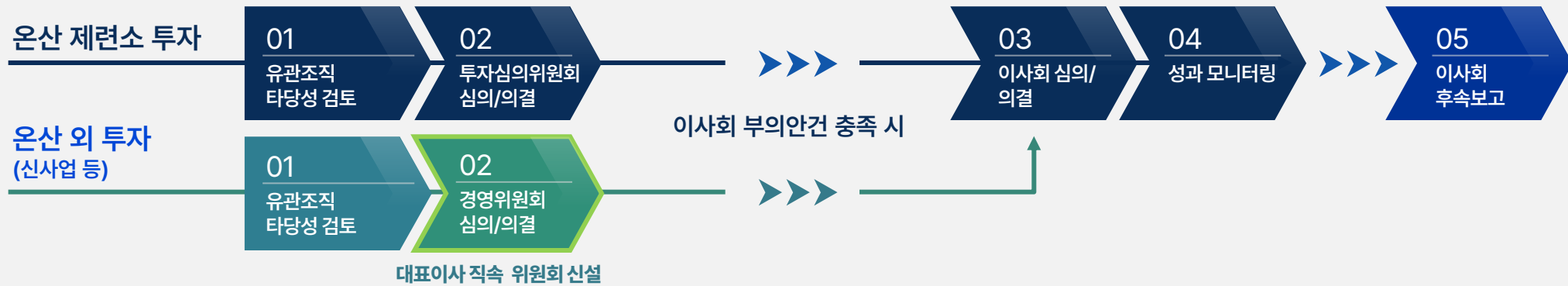
[별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위원회 신설

- 회사 내 독립 투자심의기구인 '경영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투자심의 프로세스 개선

신규 프로세스 Flow

- 기존 투자심의위원회 외 본사에서 주관하는 신사업 투자 관련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투자·전략관련 사안을 심의 및 의결
- 이사회 안건 상정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 Risk를 최소화하고 및 투명성 제고
- 경영위원회는 투자활동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성과·리스크 평가 후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Exit·구조조정 등 후속조치 결정



* 심의 및 이사회 보고·결의 기준

구분	투자심의위원회			경영위원회		
	심의기준	이사회 보고기준	이사회 결의기준	심의기준	이사회 보고기준	이사회 결의기준
시설투자	투자액 3천만원 이상 *사급 및 도급합계 기준	-	자기자본의 5.0%	자기자본의 3.0%	자기자본의 4.0%	자기자본의 5.0%
시설 외 투자 /M&A	해당없음			자기자본의 1.0%	자기자본의 1.5%	자기자본의 2.5%
재무/자금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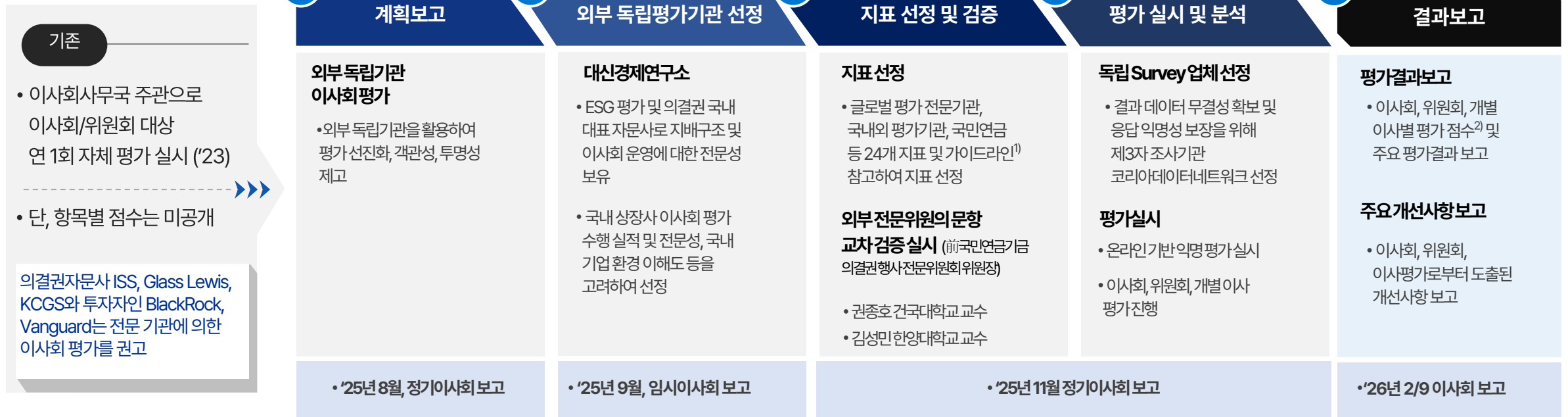
[세부 구분]

시설투자	• 시설 및 설비투자
시설 외 투자 /M&A	• 타법인 출자, 지분 투자·증자·처분 • 유형·무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재무/자금	• 차입 및 사채발행,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 대여금 및 기타 금융투자

[별첨] 독립된 이사회 평가 실시

- 국내외 주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ISS, Glass Lewis, 한국ESG기준원 등)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이사회 평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및 거버넌스 체계의 고도화 기대
- 당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이사회/위원회/개별이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5년 **평가 결과는 실제 운영 개선에 반영**
 '26년 이사회 교육 강화, 안전 검토시간 확보 등

이사회 평가 개선



- ① 국내 주요 기업 레퍼런스 및 국내 제도와 환경에 맞는 평가 전문성을 보유한 '대신경제연구소'를 평가기관으로 선정
- ② 평가문항에 대한 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평가 문항의 개발·검증·설문 실행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외부 전문기관(전문위원, 서베이 업체)으로 역할을 이원화하여 운영체계를 구축 등 이해상충 방지
- ③ 평가 결과는 이사회 보고 이후 '25 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6/1) 및 '25 사업연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6/30) 등을 통해 공개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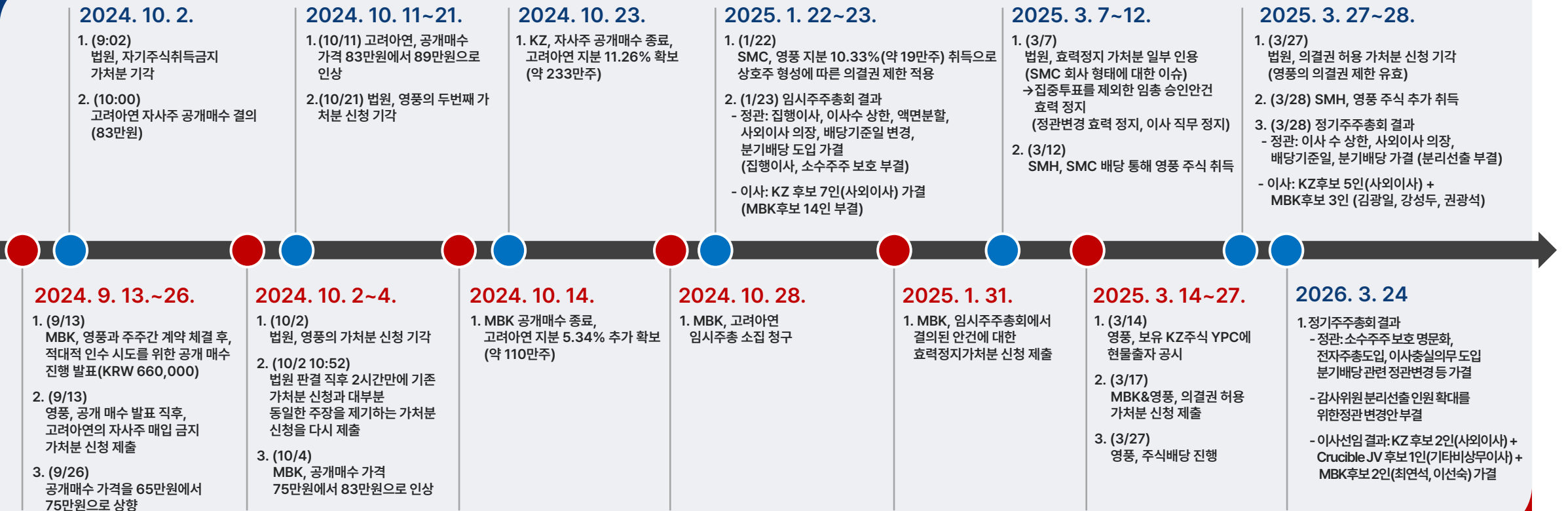
1) MSCI,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영국재무보고위원회, NYSE, 바젤은행감독위원회, 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APG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OECD, 국민연금, Citigroup, JP Morgan, PwC, Deloitte, KPMG 등

2) '25년 평가 종합 점수: 이사회 77점, 위원회 86점, 이사진 72점

[별첨] 경영권 분쟁 타임라인

- 공개매수 발표 이후,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반복 제기
- 제기된 가처분 신청 대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영풍 측이 자진 취하했으며, 일부는 법원 심리 중

고려아연



MBK & YP

[별첨]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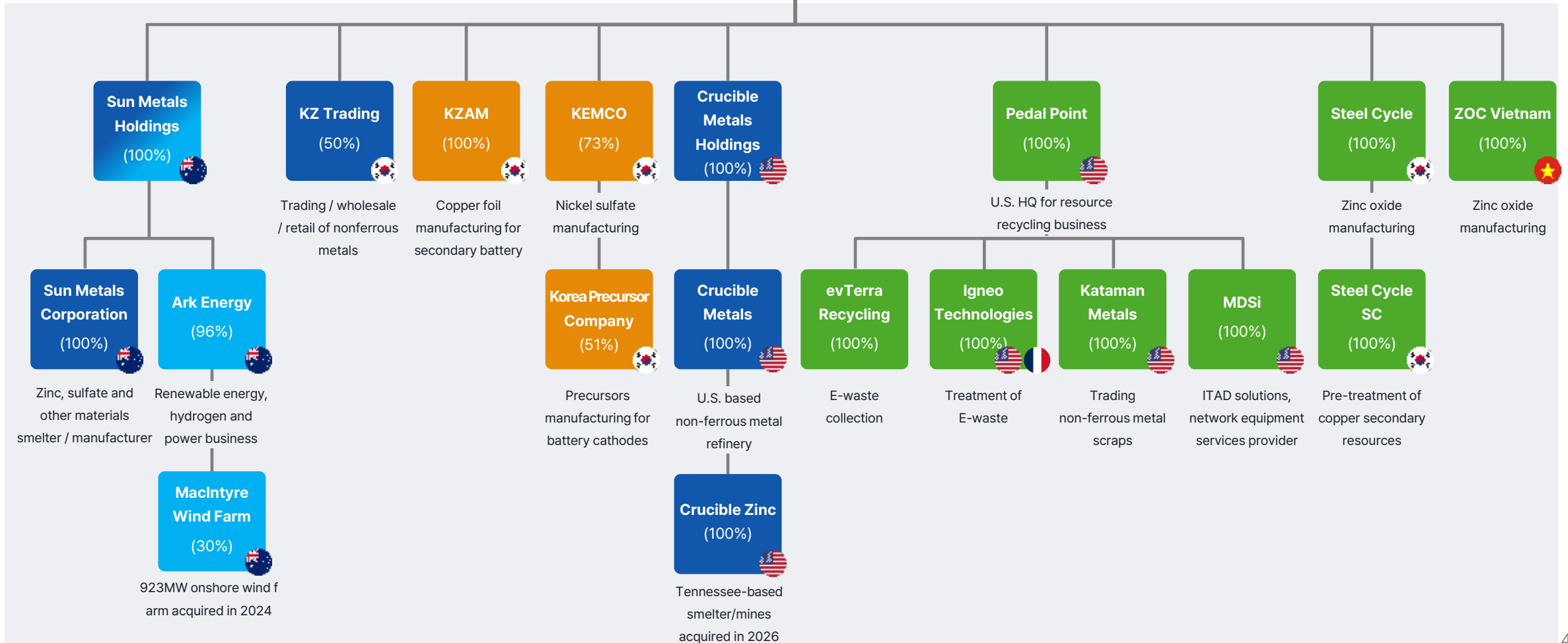
- 이번 이사 선임 안건은 선임 인원 4인에 후보자도 4명이나, **집중투표제 적용은 회사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MBK·영풍 주주제안 및 정관에 따른 절차**
- 회사는 **주주제안권과 정관상 절차를 존중**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선임 절차 진행

집중투표제 적용의 의미	
주주제안권 및 정관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청구주주의 집중투표 요구를 당사 정관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반영함으로써, 주주제안권과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권리 존중
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이사 선임 방식이 회사의 재량이나 예상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기준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
이사회 구성에 대한 주주 판단의 직접적 반영	주주는 보유 의결권을 후보별로 집중 또는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후보별 주주 지지가 이사 선임 결과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
중장기 지배구조 기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며, 이사회 독립성·책임성 제고라는 시장의 지배구조 기대와도 방향이 동일

집중투표제 적용 근거	
주주들의 제안	2026년 7월, 청구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
당사 정관상 집중투표제 규정	당사는 2025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정관은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집중투표제 채택
회사의 절차적 이행	회사는 청구주주의 요구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이는 주주제안권 및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



-  Smelting
 -  Renewables & Hydrogen
 -  Secondary battery materials
 -  Resource recycling
- (%) equity stake





**World's Leading
Green Energy and Material Provider**

IR contact
IR@koreazinc.co.kr